



청소년증을 발급합니다

2004년에 새로 제정되어 공포예정인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을 우대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발급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 대 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3세부터 만18세까지의 모든 청소년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준 비 물 : 반명함판 사진 2매(3Cm×4Cm)
- 수 수 료 : 없음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현재 시행중인 사항
 - 일반 시내버스 · 시외 직행버스 요금 할인
- 앞으로 시행예정인 사항
 - 전철 및 지하철, 철도요금 할인
 - 영화관, 공연장, 공원, 박물관, 체육 및 문화시설 할인
 -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증표로 사용 (현금영수증카드제 시행과 연계)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INCHEON

2004 | 05



5월의 축제, 즐겨보자

제2회 인천해양축제 · 부평풍물축제

세계가 주목하는 'Charm City 송도'

자연속 예술, 조각공원 기행

우리가 운영하는 청소년 웹진 MOO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에 의한, 청소년들의 전자잡지이다.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 본 사회문제, 다양한 교육정보, 청소년들만의 문화, 동영상, 주제별 게시판, 일반 청소년 참여 코너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공정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5명의 학생기자들은 한달에 두 번씩 시청 MOO 편집실에 모여 편집회의를 한다. 그 후 방과 후 시간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실시간 서비스한다.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된 웹진 이름 'MOO'는 지금은 아무 것도 없지만(無)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을 수 있는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효도하자닷컴〉은 '효도하는 당신이 아름답다'라는 모토로, 점점 우리사회에서 퇴색해 가는 효 사상을 청소년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된 사이트이다. 다소 근엄하고 고루해질 수 있는 전달 방식에서 획기적으로 벗어나 베스트가족홈피, 오늘의 효뉴스, 효도 카드보내기, 누룽지데이 등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가 수두룩하다. 특히 생활 속의 효 실천 캠페인인 누룽지 데이(매월 8일)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인천에서 창간된 청소년 잡지 'Bop'의 후신격인 이 사이트는 지난해 5월에 오픈한 이래 한미르와 엠파스의 추천 사이트로 선정되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 사이트'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밖에 2003 수원세계문화축전에 카툰이나 플래시송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효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www.hyodohaja.com

孝

- 02窓 2004 | MOO & 효도하자닷컴
- 04 2004 부평풍물대축제 Bupyeong Pungmul Festival
- 06 제2회 인천해양축제 2nd Ocean Festival 2004 Incheon
- 10 이슈 | Newsweek지 송도신도시 보도
- 12 파이팅 인천 | 인천유나이티드FC 서포터즈
- 14 그래 어디든 가보는 거야 | 시내 조각공원 기행
- 18 in. Stage | 〈제82회 극단 마임 정기공연〉 외
- 22 굿인천 굿뉴스 | 웨슬리사회봉사단, 녹화사업 참여협정 체결 외
- 27 의정소식 | 인천시의회와 천진시 인민대표대회간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외
- 28 정보뱅크 | 어린이극 전문공연장·극단
- 31 차 한 잔 | 권영순(전 한국소비자연맹인천광역시지회장)
- 32 동서남북 | 인천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
- 34 과거로의 시간여행 | 그 대회 아직도 유효한가?
- 35 우리시 지정 맛이 있는 집 | 세원정·송도장수촌
- 36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⑤ | 강화 고려궁지(高麗宮址·사적 제133호)
- 40 우리고장 우리기업 | (주)마니산 술도가
- 42 오픈 | 계양도서관·연수도서관
- 44 Coming Soon | 여성의 광장
- 46 사람하나 만나고 싶다·다섯번째 사람 | 전의철 박사
- 50 굿모닝 어진이네 | 택시 교통카드 편
- 52 독자마당 | 효도가 별건가요 외
- 55 Info Box | 푸른 5월 청소년행사 다양해요 외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04.5 (통권 125호)

〈굿모닝 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2~3)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발행일자 2004년 5월 1일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편집인 공보관 조윤길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박상영 사진 심영보·하장원(시공보관실)·김성환·김정식(자유사진가)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 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Together! 5월 축제 즐겨보자 (부평풍물축제에 참석한 외국인 모습)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2004 부평풍물대축제 Bupyeong Pungmul Festival

두드리며 즐기자! **Beat!**
함께 즐기자! **Play!**
참여하여 즐기자! **Fun!**



WHEN _ 5월 19일~ 23일(거리축제 22일~23일)

WHERE _ 부평로 및 신트리 공원

초록으로 눈부신 오월의 부평, 그 한복판에 '2004 부평풍물대축제'가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진다.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부평로와 신트리공원에 마련되는 올 부평풍물대축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풍물인과 예술인의 화려한 공연을 비롯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전통체험행사가 골고루 마련된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더불어~(Together~)'이다. '두드리며 즐기자! 함께 즐기자! 참여하여 즐기자! Beat! Play! Fun!'이라는 행사 캐치프레이즈가 말해 주듯, 한데 어우러져 즐겨보는 자리이다. 특히 '아시아와 함께 하는 부평의 힘(Power of Bupyeong with Asia)'이라는 부제에 맞춰 아시아를 대표하는 유명공연단의 초청공연도 마련된다.

축제는 풍물마당·놀이마당·참여마당으로 구성된다. KBS국악관현악단의 개막축하공연으로 시작되는 '풍물마당'은 아시아 유명 공연단을 초청해 아시아의 전통문화와 우리 예술과의 만남을 주선한다. '놀이마당'은 부평풍물대축제의 정통성을 찾는 부평풍물원판공연과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으로 펼쳐진다. '참여마당'은 지역주민과 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아시아 문화체험 행사, 거리 퍼포먼스, 부평지하상가 공연, 축제사진 공모전, 부평골 왕장기대회, 부평구씨름왕 대회도 치러진다.

문의 _ <http://www.bpf.or.kr> ☎ 509-6116

(※ 자세한 행사 일정은 본지 58면)



<p>무형문화재 초청공연 5월 29일 16:00~18:00 & 30일 11:00~13:00 / 해사고등학교 특설무대 바다와 관련된 무형문화재를 초청해 해양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시간. 29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인 남해안별신굿이, 30일에는 동해안별신굿이 각각 공연된다.</p> 	<p>호국문예제 5월 29일 10:00~16:00/ 해역방어사령부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갈고 닦은 글 솜씨를 뽐내는 자리. 주제가 바다와 관련된 것이라 저절로 사심이 피어오르겠다.</p> 
 <p>해양축제 기념식 5월 29일 19:30 / 해사고등학교 특설무대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군악대, 의장대가 펼치는 해상퍼레이드를 구경하면서 해사고등학교 행사장으로 입장, 두 번째로 열리는 해양축제의 개막을 알린다. 기념식 후에는 경축음악회로 깔끔한 마무리.</p>	<p>경축음악회(Ocean Music Show) 5월 29일 19:30~21:30 / 해사고등학교 특설무대 축제에서 음악이 빠지면 무슨 재미. KBS2라디오 공개방송으로 열리는 경축음악회에는 이본과 UN의 김정훈의 사회로 박상민, 엄정화, 테이, 강성훈, 원타임, 코요테, 거북이 등 신세대 가수가 대거 출동한다.</p> 
<p>수산물 깜짝경매 5월 28일~30일 11:00~12:00 / 해사고등학교 운동장 아줌마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산물 깜짝 경매가 매일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바다의 도시 인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바다음식 특별전과 할인판매로 알뜰한 지갑도 빛을 발할 수 있다.</p> 	<p>바다퀴즈대회 5월 30일 16:00~17:00 / 해사고등학교 특설무대 우리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www.portincheon.go.kr)에서 미리 운영되는 인터넷 바다 퀴즈와 현장 OX 퀴즈로 열리는 '퀴즈가 좋다'</p>
<p>항만함정개방행사 5월 28일~30일 10:00~17:00 / 인천항 갑문 및 해군해경부두 인천항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사진이 전시되고 해군 군함 및 해경 공기 부양정에 승선해 견학한다. 인천항에서 갑문, 그리고 월미도를 잇는 코스에는 견학용 셔틀버스가 운행된다.</p> 	<p>등대체험행사 5월 28일~30일 10:00~19:00 / 팔미도 등대 100년 전 인천 앞 바다를 환하게 비췄던 팔미도 등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2003년 12월에 새로 준공된 팔미도 등대도 함께 볼 수 있다.</p> 

 <p>바다낚시대회 5월 30일 06:00~16:00 / 인천 앞바다 (덕적도 근해) 평소 낚시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인천시장배 선상낚시대회에 도전해 볼만하다. 인천 앞 바다에 배를 띄워 놓고 낚시대를 드리우면 강태공이 부럽지 않다.</p>	<p>전시행사 5월 28일~30일 / 축제행사장 일원 바다와 관련된 해양사진 자료를 전시하는 바다사진 전시를 비롯해 인천항만역사전시, 모형배전시, 해양레포츠포츠 장비전 등이 행사 기간 내내 행사장 여기저기서 열린다. 또 해사고등학교 운동장에는 해양도시 인천 홍보관이 운영돼 오늘과 내일의 인천의 모습을 알 수 있다.</p> 
<p>전국해양소년단 해양캠프 5월 29일~30일 /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청소년들이 바다를 배우고 친취적인 기상을 높일 수 있는 한국해양소년단의 해양대회가 인천에서 열린다.</p> 	<p>폐막콘서트 5월 30일 19:00~20:30 / 해사고등학교 특설무대 iFM 빈우의 러브플러스 라디어 공개방송이 폐막콘서트로 열린다. 팡팡 튜는 신세대 가수들의 신선한 무대가 해양축제의 대미를 멋지게 장식한다.</p> 
<p>시민바지락까기대회 5월 29일~30일 13:00~14:00 / 해사고등학교 운동장 바지락 까는 대표선수 '나' 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서해의 명물인 영흥도 바지락 '누가 누가 잘 까나' 대회를 연다.</p>	

■주요행사 일정

시간	28일 (금)	19:00~19:30	해양축제 기념식
09:30~11:30	깨끗한 바다만들기 캠페인	19:30~21:30	경축음악회(오션 뮤직쇼)
10:00~17:00	갑문개방행사 / 함정공개행사	21:30~22:00	해상 불꽃놀이
시간	30일 (일)		
10:00~19:00	청소년해양견학프로그램 / 팔미도 등대체험행사	05:00~16:00	바다낚시대회
11:00~12:00	수산물 깜짝경매	10:00~17:00	서해안풍어제(선상행사) / 항만, 갑문개방행사 / 함정공개행사
17:00~19:00	서해안풍어제(대동굴)	10:00~19:00	팔미도 등대체험행사
19:30~21:30	'Blue Concert' iTV(iFM) 오종철의 팡팡 907	11:00~12:00	수산물 깜짝경매
시간	29일 (토)	11:00~13:00	무형문화재 초청공연(동해안 별신굿)
10:00~14:00	치어방류행사	13:00~14:00	시민 바지락까기 대회
10:00~16:00	호국문예제	14:00~16:00	인천시민바다축제
10:00~17:00	항만 · 갑문개방행사 / 함정공개행사	16:00~17:00	바다퀴즈대회
10:00~19:00	팔미도 등대체험행사	18:00~18:30	바다낚시대회 시상식
11:00~12:00	수산물 깜짝경매	19:00~20:30	폐막콘서트 iTV(iFM) 빈우의 러브플러스
11:00~17:00	서해안풍어제(대동굴)	시간	28일~30일
12:00~13:00	명사요리경연	전시 · 상설행사 10:00~19:00	바다사진전시 / 인천광역시 홍보관 / 모형배 전시 / 인천항역사자료전시 / 해양레포츠포츠장비전시 / 해양생물사진전시 / 무선동호회장비전시 등
13:00~14:00	시민 바지락까기 대회 / 해양관광투어(출항)		29일~30일
13:00~15:00	해군군악대, 의장대 퍼레이드		인천해양소년단 해양캠프
14:00~16:00	인천시민바다축제		
16:00~18:00	무형문화재 초청공연(남해안 별신굿)		
16:00~18:00	한그물고기잡기	행사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3492)	
18:00~19:00	선상콘서트(입항) iTV(iFM) 오종철의 팡팡 907 / 함정퍼레이드		
18:30~19:00	군악대, 의장대 퍼레이드		

CHARM CITY?

매혹의 신도시로 떠오르는 ‘송도’

송도신도시 기획자 존 B. 하인스에 따르면 송도 신도시의 부상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아틀란티스 섬이 다시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극적인 일이 될 것이다. 한때는 물밖에 없었던 인천 근처에서 4백60만평방미터 이상의 사무 공간과 50만명의 인구를 지니게 될 도시가 한국의 서해안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골프장과 공원이 햇빛 속에서 에메랄드처럼 빛날 것이다. 3만5천가구로 구성된 새로운 지역사회가 마법처럼 뿌리내릴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인스조차 장담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다. 과연 사람들이 송도신도시에서 살고 싶어할까.

한국은 물론 미국측 파트너 게일 컴퍼니로서는 중대한 문제다. 하인스는 이 회사의 국제 부문 최고경영자(CEO)다. 1천8백30억달러의 건설비용이 투입되는 이 거대도시의 규모면에서 과거 아시아에서 ‘디지털 도시’를 건설하려던 어떤 시도도 능가하는 수준이며, 홍콩의 사이버포트(건설비 20억달러)와 말레이시아의 사이버자

아(1백70억달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송도신도시 기획자들은 자신들의 야심이 더 크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저렴한 임대료와 광대역 인터넷 접속만으로 입주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하는 건축가들이 추진하는 송도신도시의 거대한 신경형 첨단기술 프로젝트들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사이버포트와 사이버자아는 다국적 기술 기업 유치를 주 목표로 삼는 반면 송도신도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컨벤션 센터·중앙공원·골프장·카페·학교·의료시설·항구·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선다. 한마디로 건립 첫날부터 진정한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이버포트와 사이버자아를 실패작이라고 단정짓기는 너무 이르다며 이들 도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최근의 기술시장 붕괴 때문에 악화된 자연스러운 성장통일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의 세계화와 아웃소싱으로 언젠가는 빈 사무실들이 채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대한민국 제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의 송도신도시가 국내를 넘어 전 전세계적인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워크는 지난 3월 29일자에서 송도신도시 건설사업을 ‘Charm City?(매혹적인 도시)’란 제목의 기사로 2쪽에 걸쳐 자세하게 소개했다. ‘To hear planner John B. Hynes tell it, the rise of New Songdo City will be as dramatic as the resurfacing of Atlantis.’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이 기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자 인천 최대의 프로젝트인 송도신도시 건설사업을 세계 각국의 사례들과 비교하면서 이 도시의 성공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의 전문을 싣는다.

다. 이는 송도신도시에도 좋은 소식이다. 미 MIT의 도시 설계 전문가 데니스 프렌치먼은 “송도신도시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제는 그곳에 거주할 근로자들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거 및 첨단 상업 공간을 갖춘 모든 디지털 도시들의 공통된 과제다. 이에 대해 기획자들은 디지털 도시들이 교외생활의 무미건조함과 현대생활의 혼잡함을 해소해주는 오아시스라고 홍보한다. 프렌치먼은 2010년 완공되면 1만2천명의 주민들과 7백개의 정보기술(IT)업체들을 유치하게 될 핀란드의 헬싱키 가상 마을, 덴마크 코펜하겐의 오스테라드, 싱가포르의 원 노스와 브라질의 사비안스 같은 기술 단지들을 열거한다.

헬싱키 당국은 헬싱키 가상 마을을 ‘무선통신 덕분에 친구를 찾기가 쉬워지고 현지 영화 상영시간과 행사 정보들을 접할 수 있으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거대한 실험의 장’이라고 홍보한다. 싱가포르의 원 노스는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도입해 전망좋은 아파트, 공기 여과 장치, 옥상 정원, 그리고 구불구불한 길들을 만들어 ‘기술과 상업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사색과 명상을 즐길 여지를 남겨둘 것’을 약속한다.

규모면에서 송도신도시에 필적하는 몇몇 개발 중 하나는 런던의 도크랜드다. 1981년 개발되기 시작한 도크랜드의 사무실들에는 최근 몇년 동안 텔레그래프 뉴스페이퍼 그룹과 모건 스탠리 같은 업체들이 입주했다. 이 프로젝트가 재정적인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입주자들은 이 지역에 런던의 구시가지가 지닌 매력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버자아도 유사한 불만을 사고 있는데 하인스는 송도신도시가 이같은 사례들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생각해보라. 아무데나 가서 광대한 도시 공간을 조성한 뒤 삶의 질을 보장하지도 않으면서 기업들을 초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람들은 어디서 살고 어디서 쇼핑을 하며 자녀들을 어느 학교에 보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송도 신도시측에서 ‘세계에서 가장 대담한 부동산 단지’이자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된 도시’라고 홍보하는 그 무언가에 있다. 건물 설계는 초현대식이고 광고 책자들은 서구식 시설의 매력과 밤낮이 따로 없는 생동감 넘치는 거리 모습을 선전한다.

홍보책자들에 따르면 이 도시는 ‘베네치아를 모방한’ 6km의 운하와 파리의 거리 풍경, 시카고를 모델로 삼은 부두, 미국 동부 사립고등학교들에서 영감을 얻은 학교들을 갖추고 하버드대 컨설턴트들이 고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려면 프로젝트 완공 시점인 2020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송도신도시는 중국으로 향하는 야심찬 ‘관문’들 중 하나로 싱가포르·일본 등의 국가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한국 관리들은 외국 기업들이 인근 항구와 새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 지역은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복잡

한 서류 절차를 없앨 것이다. 모든 업무는 송도 신도시의 공식 언어인 영어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 관리들은 송도신도시가 외국인 입주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확신하지만 위험은 크다.

미 캘리포니아대(UCLA) 도시 계획 전문가 디네이트 매키타는 “송도신도시 계획은 정말이지 대단하다. 만일 실패한다면 많은 자본을 투자했지만 회수할 기회가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지금 그같은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도신도시의 야심이 실현될 것인지는 다른 도시들이 수세기를 거쳐 발전시켜온 특성을 이 도시가 10여년의 기간만에 개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또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With B. J. LEE in Seoul and
ALEXANDRA A. SENO in Hong Kong

‘백넘버 12번’ 못 막으면... 그 팀은 진다

“인천FC~ 승리하리라”

“인천FC~ FOREVER 인천~”

지난 4월 3일 토요일, 2004 K리그 개막일이다. 월드컵 4강의 신화가 잉태되었던 문학경기장에서 신생팀 인천유나이티드 FC가 전북 현대와 첫 경기를 치르는 역사적인 날이다. 휘슬이 울리기 2시간 전부터 지하철 문학경기장역 입구는 30~4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들이 외치는 구호와 노래로 후끈 달아올랐다. 북소리를 앞세운 그들의 응원은 운동장으로 향하는 관중들의 맥박수를 끌어 올리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인천유나이티드의 서포터즈인 T.N.T 멤버들이다. 풀이하면 Terror & Trembling, ‘공포’와 ‘전율’이다.

경기장은 이미 서포터즈들로 인해 ‘전율’을 느낄 만한 분위기였다. 북쪽 골대 뒤 스타디움에 포진한 1천여 명의 서포터즈들은 갖가지 깃발을 흔들고 손나팔을 불며 전의를 불태운다. 출정 준비 중인 선수들에게 기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T.N.T, Stand up for the Champion’ 등의 구호가 걸린 여러 장의 현수막들이 빈틈없이 걸려 있다.

축구단은 창단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포터즈들의 응원만 봐서는 결코 신생구단 같지 않은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줬다. “승리의 깃발 올린 우리, 그대와 함께 나간다.” 출정가를 비롯해 응원가 서너 곡과 구호 10개 정도는 누구나 따라서 한다.



이제 운동장에서 서포터즈 없는 경기를 상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관중들도 아직은 낮은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점점 일심동체가 되었다. 승부를 떠나 그들은 인천에 응원할 수 있는 축구단이 생겼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냥 즐겁다는 표정이다.

휘슬이 울렸다. 수백발의 폭죽이 터지며 문학산은 순식간에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지난해 FA컵과 울산은 슈퍼컵에서 우승한 강팀 전북 현대와 처음부터 일진일퇴를 펼쳤다. 특히 왼쪽 날개 최태욱으로 이어지는 왼쪽 측면 공격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서포터즈와 관중들은 ‘골! 골! 골!’을 외치며 선수들에게 힘을 보탰다.

90분간의 공방 끝에 종료 휘슬이 울렸다. 0-0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인천유나이티드는 성공적인 K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무엇보다 이날의 승리자는 서포터즈들이었다. ‘백넘버 12번’을 서포터즈의 몫으로 영구 결번 시킨 구단에 보답이라도 하듯 그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한시도 앉아 있지 않고 목청껏 응원했다.

해가 서쪽으로 누엿누엿 넘어가자 관중들은 썰물처럼 운동장을 빠져 나갔지만 서포터즈들은 마무리 응원을 펼치며 주변을 말끔히 정리했다. 그리고 누군가 외쳤다. “4월 10일 다음 포항경기 원정 응원합니다. 버스 준비돼 있습니다.” 이제부터 축구 시즌이 폐막될 때까지 전국의 프로축구 경기장은 T.N.T의 공포와 전율에 휩싸일 것이다.

글_유동현 · 사진_김정식



※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자유롭게 서포터즈에 가입 할 수 있다. 현재 인천에는 T.N.T 외에 여러 개의 서포터즈가 있는데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인천유나이티드FC 홈페이지(www.incheonutd.com)를 클릭해 <UTD서포터즈 존>에 들어오면 된다.

구름 한 점 바람 한 자락 그리고... 조각 작품 하나

산들산들 봄바람이 불어오는가 했더니 어느새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는다.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하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체 따라주는 것이 건강하게 여름을 맞는 비결.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나서보자, 바람 맞으러.

연인과 함께라면 모도 조각공원

섬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게다가 특별한 볼거리를 찾아 나서는 길은 들뜬 걸음에 날개를 달아주는 듯 하다. 인천공항고속도를 타고 달리는 길은 늘 그렇듯이 설레임을 준다. 삼목선착장에서 신도로 향하는 배에 오른다. 주말이면 선착장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선 차 뒤에 서서 몇 대씩 배를 보내는 기다림을 감수해야 하지만 평일의 선착장은 느긋하기만 하다. 두런두런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들도, 갑판에 나와 바람을 맞는 사람들도 모두 여유로워 보인다.

벚고동을 올리고 선착장을 떠난 배는 무거운 몸체를 돌리고 코앞에 보이는 섬을 향해 느릿느릿 속도를 올린다. 갑판에 올라 비릿한 바다 내음을 맡으며 물 속으로 자맥질하는 갈매기를 구경하다가 바닷바람이 아직 차갑다고 느껴질 무렵이면 어느새 신도에 도착한다. 선착장을 떠난 지 꼭 10분만이다.

신도를 한바퀴 돌아 연륙교를 건너면 시도에 닿는다. 다시 자동차에 가속도가 붙을 즈음이면 노르메기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건너다 보이는 작은 섬이 모도다. 지난 2001년 5월 431m짜리 다리가 놓여지면서 시도와 모도는 한 몸이 되었다. 그림처럼 놓여진 연륙교 왼편으로 바다로 뛰어들 듯한 조각상 두 점이 방문객의 눈길을 잡아끈다. 그 옆으로 산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비행기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이 된다. 하지만 이 조각상은 모도 조각공원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

구불구불한 섬 길을 따라 폐교를 지나면 모도의 숨겨진 보물 ‘모도와 이일호’가 숨바꼭질하듯 숨어있다. 입구에 장승처럼 서있는 나무 대문이 조각공원의 시작을 알린다. 이 곳에는 조각가 이일호 씨의 작품세계가 펼쳐진 조각 작품 20여 점이 동지를 틀고 있다.

조각공원 안으로 들어서면 작업실을 새로 짓는 공사가 한창이라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다. 현재 있는 작업실을 전시실로 바꾸기 위한 공사란다. 공원의 한 복판에서 구약성서 속의 ‘원죄’를 연상시키는 작품과 만나게 된다. 조각공원 여기저기에는 기타 치는 여인, 소라껍질 속의 아이들, 어깨동무한 사람들... 등의 작품이 무질서한 듯 편안히 자리를 잡고 있다. 작가의 문학과 영화, 성, 나르시즘적 몽상이 깃든 종합적인 예술관이



1 · 2 · 3 · 4 · 5 모도 조각공원의 작품들

그대로 묻어나는 작품들이다. 공원 오른쪽의 바다를 바라보고 매달려 있는 한 쌍의 그네나 아이들을 위해 설치한 것 같은 미끄럼틀조차도 작가의 손길이 배어나 하나의 훌륭한 조각품이 된다.

작가가 추구하는 세계가 ‘에로티시즘’ 이라고 하던가? 그래서인지 가족나들이 보다 는 연인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와서 보고 즐겨야 그 맛이 더할 듯 하다.

찾아가는 길 _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타고 영종대교를 건너서 10여분을 달리면 첫 번째 나들목에 무의도, 을왕리라는 이정표가 나온다. 여기서 빠져나와 공항북로를 달리다 삼목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삼목선착장이다. 삼목선착장에는 신도를 거쳐 장봉도로 가는 배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여름철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한 시간에 한번 꼴로 배가 뜬다. 차를 싣고 갈 경우에는 목적지가 신도인지, 장봉도인지에 따라 줄 맞춰 배 안에 차를 댈다. 휴일엔 차량이 많아 삼목선착장에 줄지어 기다릴 각오를 해야한다. 배삐는 소형차 기준으로 10,000원, 운전자 이외의 승객은 1,500원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동인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운항하는 버스(111-1)를 타고 삼목사거리에서 내려 삼목선착장에 닿는다.

배편문의 _ 세종해운 (884-4155~6)



5

가족과 함께라면 인천대공원 조각공원

인천대공원은 사시사철 색깔과 모양을 달리해 언제 찾아도 포근한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를 맞아준다. 나른한 봄날의 오후에 찾은 인천대공원은 적당한 인파, 적당한 기온, 적당한 바람으로 이만한 나들이 장소가 없다고 뽑내는 듯하다.

평일 오후 인천대공원 자전거광장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질주하며 노익장을 과시하는 멋쟁이 아저씨들 차지다. 바람을 가르며 멋진 포즈로 인라인을 타는 모습에 지나던 이들의 눈길이 한꺼번에 머문다. 사람이 많지 않은 자전거광장도 활기에 넘친다. 인천대공원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인공호수에는 힘찬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가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호수주위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도, 재잘거리는 소녀들의 표정도 모두 살아있는 듯 하다.

호숫가를 지나면 곧 조각공원과 만난다. 4천800여 평에 자리잡고 있는 조각공원의 입구에는 조태병 작가의 1999년 작품 ‘COSMOS 99-9’가 방문객을 맞는다. 호수를 거쳐 조각공원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맞아 돌



6

아가는 수많은 바람개비로 구성된 이 작품은 초원에 무더기로 피어난 들꽃을 연상시킨다. 산책 나온 젊은 엄마는 끊임없이 아이에게 말을 건넨다. “꽃 같아? 바람개비 같아? 풍차 같아?”

조각공원 곳곳에는 중견 조각가들이 스테인리스, 청동, 알루미늄 등을 이용해 만든 스물 다섯 점의 조각품들이 설치돼 있어 인천대공원을 찾는 가족들에게 또 하나의 쉼터가 되어준다.

조각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잔디가 펼쳐져 있다. 어디에 앉아서 쉬

든, 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까먹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내려놓든 안심이다. 조각공원 중앙 즈음에는 쌍둥이 아이를 앞세운 젊은 부부가 안병철 씨의 작품 ‘문의 이미지-명상’ 앞에서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아내기에 여념 없다. 왼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소라껍데기에 올라타고 있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형상을 만날 수 있다. 임일택 씨의 ‘바닷가의 아이들’이다. 안규철 씨의 ‘나무들의 집’에는 지붕이 없고 문 사이가 벌어진 시멘트 구조물 안에 나무 한 그루가 살고 있다. 조각 작품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자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할머니를 모시고 소풍 나온 가족은 오상일 씨의 ‘남은자’라는 작품에서 포즈를 취한다. ‘바다속의 낙서’는 박부찬 씨의 작품으로 바다이미지를 조각한 돌 위에 의도적으로 낙서를 해 놓았다. 지나는 길손들이 남긴 낙서도 조각 작품으로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배어난다.

공원을 거닐다 불쑥 불쑥 만나게 되는 조각 작품들과 방문객은 자연스레 하나가 된다. 어느 것이 조각 작품이고 어느 것이 객인지...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연과, 예술과 만나는 일이다.

찾아가는 길 _ 경인전철 송내역의 남광장에서 시내버스 15, 16, 30번과 좌석버스 103번을 타면 인천대공원 정문에서 내릴 수 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로 나오면 5분 거리다.

글 _ 정경애 · 사진 _ 김성환

6 조각공원은 훌륭한 휴식터가 되어준다 7 분수와 조각이 어우러진 인천대공원 8·10 하나가 되는 자연과...조각과...사람 9 인천대공원 조각공원에는 30여점의 다양한 조각작품이 전시돼 있다

도심 속 보석찾기

관심을 갖지 않고 쉽게 지나쳐서 그렇지 사실 시내 구석구석에는 멋진 조각품과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다.

계양구에 자리잡은 경인여자대학에서는 아름다운 교정을 거닐다 곳곳에서 조각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국전 추천작가인 강관욱 씨의 ‘구원’을 비롯해 심영철 씨의 ‘버섯’ ‘아름다운 그 님’, 윤영자 씨의 ‘모자상’과 모도 조각공원을 만든 이일호 씨의 ‘사랑이야기’ ‘유토피아’ 등 20여 점의 조각 작품들이 동지를 들고 있다.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흙플러스는 작은 조각공원이다. 그곳에는 최성철 씨의 ‘너와 나’를 비롯해 한진섭 작 ‘꿈을 찾아서’ 허백 작 ‘풍요의 대지’ 등 세 점의 조각작품이 전시돼 있다.

아파트에 있는 조각품이라면 단연 청천동에 있는 대우아파트가 작품 수에서는 최고를 자랑한다. ‘뢰비우스의 시간’을 비롯해 ‘어머니’, ‘태동’, ‘고뇌’, ‘권태’ 등의 작품들이 주민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감싸준다. 인천종합터미널 만남의 광장에 있는 작품들은 터미널이 개장할 때 심사를 거쳐 설치된 작품들이라 터미널이 갖는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어 인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준다.

건물앞의 조각품이나 조형물들은 그냥 스쳐 지나치기 쉬운 작품이지만 하나하나에 작가의 손길이 배어나고 있어 지나는 길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하다.



제 8 2 회 극 단 마 임 정 기 공 연

클라운 마임의 세계

클라운 마임(CLOWN MIME)이란 어릿광대 극에 마임이 더해진 것으로 유럽 등에서는 거리나 광장 등에서 공연한다. 1982년 중구 경동에서 시작하여 총 100회가 넘는 공연과 축제를 개최, 참가해 온 극단 마임의 최규호 대표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무대 공연을 시도하여 장르화 했다.

클라운 마임은 화려한 의상과 분장의 어릿광대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해학과 풍자가 있는 놀이 형식으로 풀어 어린이에게는 동심의 이야기를, 어른들에게는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번 공연은 두 명의 클라운으로 이뤄진 일본의 <엔 타운 폴스(YEN TOWN FOOLS)>와 한국 극단 마임의 <최규호와 째수, 쟁배>의 작품으로 이뤄진다.

일시 _ 5월 12일(화)~14일(금) 오후 7시30분 / 15일(토) 오후 3시, 7시
티켓 _ 일반 10,000원 / 청소년 4,000원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문의 _ 772-7361(www.clownmime.co.kr)



인 천 시 립 무 용 단 제 5 2 회 정 기 공 연

새 곳



인천을 중심으로 하여 현존하는 다양한 곳의 형태들은 과거 황해도, 이북 지방의 곳의 형식에 오랜 세월 풍파를 간직한 채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시간이 인간의 삶과 동일한 속도로 흐르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삶의 테두리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작품 「새 곳」에 대한 출발점이 된다.

「새 곳」은 인천의 시조(市鳥)인 두루미의 재비상이라는 즐거리를 바탕으로 인천의 새로운 비약을 곳을 치르는 간절한 심정으로 만든 작품이다.

작품 제목인 「새 곳」은 두루미라는 '새'에서 따온 말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시간 속에서 인천이란 지역이 새로운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을 세계 속으로 내보내던 인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사이에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간격, 사이의 준말로서의 '새'이기도 하며 새로운 인천의 모습을 기약하는 새로움의 '새'이기도 하다.

일시 _ 5월 14일(금) 오후 7시30분 / 15일(토) 오후 3시, 6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0,000원 / 5,000원
문의 _ 438-7774, 420-2788

Live Concert

추억의 빅 콘서트 7080 캠퍼스밴드

‘모두 다 사랑하리’ ‘구름과 나’ ‘불놀이야’... 7·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의 애창곡이다. 당시 최고의 그룹사운드였던 송골매의 구창모가 부르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 ‘희나리’, 이름만큼 듬직한 실력과 그룹사운드 건아들의 ‘젊은미소’, 잔잔한 멜로디로 서정적인 멋이 물씬 풍긴 장남들의 ‘바람과 구름’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애절하게 만들었던 휘버스스의 ‘그대로 그렇게’, ‘가버린 친구에게 바칩’ 등을 인천 무대에서 직접 듣게 되었다.

이밖에 우리나라 대학가요제 열풍을 일으킨 최초의 그룹사운드 샌드 페블즈의 ‘나 어떻게’와 블랙테트라의 ‘구름과 나’, 옥슨 80의 ‘불놀이야’, 그리고 라이너스의 ‘연’ 등 7·80년대 대학그룹사운드가 학창시절 즐겨 부르던 그 노래들을 그때 그 멤버들이 다시 들려주며 지난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일시 _ 5월 23일(일) 오후 3시, 7시
티켓 _ 70,000원 / 60,000원 / 50,000원 / 40,000원
문의 _ 창 라이프 433-6070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예매 _ 티켓링크 1588-7890 (www.ticketlink.co.kr)



천상의 목소리...팝페라 테너 임형주 콘서트

제2의 안드레아 보첼리로 평가받는 천상의 목소리 임형주. 'Misty Moon'... 안개가 자욱한 달빛의 세계, 천상의 아리아의 세계로 인천시민을 초대한다. 그동안 대통령 취임식이나 카네기 홀 단독 콘서트, 한일 월드컵 1주년 기념 공연 등 대형 무대에서 그의 노래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름다운 목소리와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을 지닌 테너'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정통 성악 발성을 강조한 오페라 아리아와 클래식 넘버를 특유의 창법과 해석으로 당당하게 소화해 내고 있다. 특히 전곡을 자신의 음역과 보이스 컬러에 맞게 선곡하고, 팝페라 장르에 적합하도록 편곡하며 프로듀싱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고 있다.

일시 _ 5월 30일(일)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80,000원 / S석 60,000원 / A석 40,000원
예매 _ 티켓링크 1588-7890 (www.ticketlink.co.kr)
문의 _ (주)아미엔터테인먼트 02-2654-4861



최병관 일본동경사진미술관 초대 개인전

일본 동경사진미술관, 동경일한친선연합회 기획으로 한국의 사진작가로는 처음으로, 최병관 씨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6일 까지 국제적 사진미술관인 일본 동경사진미술관에서 개인전시회를 열고 있다.

1996~1998년 동안 휴전선 155마일을 죽음을 무릅쓰고 도보로 수차례 횡단하면서 사진작업을 한 것이 10만여점이다. 그중 이번에 231점이 전시되고 81점이 일본에 사진집으로 출간된다. 이번 전시의 주 목적은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통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있다.

인천 소래포구에서 태어나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최병관 씨는 지난 2001년 2월 6일 일본 NHK TV에서 아시아의 작가로 선정돼 '한국의 사진작가 최병관' 편이 방영되기도 했다. 현재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 공사지역 사진작업을 마친 후, '평화 번영의 실크로드' 사진작품집 출간을 준비 중에 있으며 '비무장지대사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연극 〈소년과 바다〉

이 작품은 오브젝팅 연극으로 오브제와 인형을 사용하여 일인이 다수의 등장인물을 표현함으로써 보다 연극적인 효과를 보이며 동화적인 상상력을



단순화하였다. 또한 마임적인 요소를 사용해 언어보다 시각화된 이미지에 중점을 둔 연극이다.

한 소년이 전설 속의 용을 찾아 모험을 나서서 오염된 바다와 환경을 정화시킨다는 내용으로 소년의 모험을 통해 꿈과 용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게 한다.

일시 _ 5월 19일(수) ~ 21일(금) 오전 11시, 오후 3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10,000원 / 7,000원 / 5,000원

문의 _ 극단 미추홀 812-4123

현철孝 콘서트



‘국민가수’ 라는 타이틀이 붙는 현철이 팬들과 함께해온 지난 세월에 대한 고마움과 인천 팬들을 좀더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효 콘서트’란 이름으로 인천 무대에 선다. ‘현철과 별떼’라는 보컬그룹을 결성하여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활동 중 1980년 ‘앉으나 서나 당신생각’ 이란 곡을 발표, 히트를 하면서 서울로 입성해 중

앙무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어 ‘사랑은 나비인가 봐’, ‘뭇난 내청춘’, ‘청춘을 돌려다오’ 등 이후 수없이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한국 가요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국민가수로 자리하게 됐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히트 곡을 모두 들려준다.

일시 _ 5월 8일(토) 오후 3시, 6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50,000원 / 40,000원

문의 _ 420-2717

가족 뮤지컬 〈리틀라이온〉

전문 뮤지컬 배우 외에 아크로바틱 배우들이 출연해 무대를 가로 지르는 역동적 묘기가 또 하나의 볼거리다. 캣츠 무대에서나 볼 수 있는 섬세한 특수분장 및 가면과 동물들



소재로 무대 전반에 흐르는 역동감은 한국판 ‘어린이 캣츠’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또한 전문특수 효과팀의 다양한 효과음 연출과 라이브 공연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초대형 뮤지컬이다.

일시 _ 5월 5일(수) ~ 6일(목) 12시, 오후 3시, 5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15,000원 / A석 12,000원

문의 _ 420-2717

뮤지카 아카데미아 〈제1회 음악이야기〉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1부는 뱃노래 (조두남 곡). 저구를 흘러가는 곳 (김동진 곡) 등 우리에게 낯익은 가곡을 들려준다. 이어 2부는 La donna e mobile (여자의 마음) 등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를 공연한다.

일시 _ 5월 19일(수) 오후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초대

문의 _ 361-0038

부평문화사랑방

〈금요상설무대 공연·가족사랑 예술경연대회〉

2004년 1월 개관한 부평문화사랑방은 봄 시즌을 맞아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클래식·국악·무용·풍물의 주제로 상설공연을 마련한다. 이번 상설공연은 부평문화사랑방의 첫 번째 시즌상설공연으로 다양한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공 연 일 시	공 연 주 제	공 연 팀
5월 7일(금) 19:30~	클래식의 밤	바로크 앙상블
5월 14일(금) 19:30~	국악의 밤	서도소리 보존회
5월 21일(금) 19:30~	공연 없음	
5월 28일(금) 19:30~	풍물의 밤	소도/가운누리

※장소 : 부평문화사랑방(갑산2동사무소 3층) / 티켓 : 초대(무료)



이와 함께 부평문화사랑방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제1회 가족사랑 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 장르는 연주, 노래, 춤 등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장르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일시 _ 5월 15일(토) 오후 3시 (접수 : 5월 12일까지)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 (505-5995)

시상내역 _ 1등 30만원 / 2등 20만원 / 3등 10만원 / 인기상 10만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	4	5	6	7	8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16) 오전11시, 오후2시, 4시 주말 공휴일 12시, 오후2시, 4시 김소여린이극장(구월동) 7천원, 5천원 434-7008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5) 오전11시, 오후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원 821-2235 가족뮤지컬 <별가슴이 임금님> 오전10시20분, 11시30분, 오후3시 계양문화회관 1만원 551-6602	4 황부리영감과 도깨비노타 (~6) 오전11시, 오후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원 821-2235 가족뮤지컬 <별가슴이 임금님> 오전10시20분, 11시30분, 오후3시 계양문화회관 1만원 551-6602	5 뮤지컬 <인텔리야온> (~6) 12시, 오후3시, 5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5천원 / 1만2천원 420-2717 가족뮤지컬 <별가슴이 임금님> 오전11시, 오후2시, 4시 계양문화회관 1만원 551-6602	6 	7 신앙병 환우를 돕기 위한 제1회 사랑의 음악회 오후7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초대 / 861-0107 배뱅이굿 와창소리극 오후3시 / 계양문화회관 / 무료 / 551-6602 계양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 오후5시 / 계양문화회관 / 무료 / 551-6602	8 현철孝 콘서트 오후3시, 6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만원, 4만원 420-2717 2004 사회통합교육놀이 한마당 오후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아이공연장 무료 889-8298
9	10	11	12	13	14	15
테너 이철하 독창회 오후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초대 426-2793 제18회 새벽 춤 공연 오후3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아이공연장 무료 865-5474	11 여성노래부르기교실 오전11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초대 / 440-3265 황경뮤지컬 <두리의 숲속여행> (~23) 오전11시, 오후2시, 4시 부평동아트홀(구 대명아트홀) 7천원, 5천원 522-7002	12 블라운 마임의 세계 (~14) 오후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원, 4천원 861-0107	12 뮤지카 아카데미아 <제1회 음악이야기> 오후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361-0038 황경연극 <소년과 바다> (~21) 오전11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원, 7천원, 5천원 / 812-4123 진국연극제 출품작<벼룩시장> (~21) 오후7시 / 계양문화회관 / 초대 / 551-6602	20 인천에고 제7회 무용과 정기발표회 오후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초대 433-3142	21 사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오후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원, 7천원, 5천원 420-2781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오전9시30분, 11시, 오후3시 사구문화회관 1만5천원, 1만2천, 1만원	22 중앙음악신문공쿠르 피아노경연대회 오후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무료 875-5119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23) 오전11시, 오후1시30분, 3시 사구문화회관 1만5천원, 1만2천, 1만원
23 축악의 비공식 7080 오후4시, 7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7만원, 6만원, 5만원, 4만원 / 018-627-5004 지성철 교수 피아노독주회 오후7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초대 / 547-0502 2004청소년을 위한 오월 무용제 오후5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아이공연장 / 무료 / 760-8858	24 	25 인천크리스마스콘서트 제16회 정기연주회 오후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초대 528-2854	26 청소년 협주곡의 밤 오후3시, 6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5만원, 4만원 / 420-2717 김민경예술제 치디팀 오후5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1만원 / 277-8397 계양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 오후5시 / 계양문화회관 / 무료 / 551-6602	27 제14회 제자사랑음악회 오후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천원 019-325-2111 미추홀청소년교향악단 제36회 정기연주회 오후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4천원 / 518-1511	28 	29 어린이뮤지컬 <아린왕자> (~30) 12시, 오후2시, 4시 1만원, 7천원 018-308-7604 김현숙희마무용단 <우리들의 이야기Ⅳ> 오후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아이공연장 무료 / 760-8862
30 판페라가수 임형주 콘서트 오후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8만원, 6만원, 4만원 02-2654-4861 계양어린이합창단 정기공연 오후6시 계양문화회관 무료 551-6602						

굿인cheon 굿뉴스

웨슬리사회봉사단, 녹화사업 참여협정 체결



우리시와 웨슬리사회봉사단이 지난 4월 13일 오후 송의감리교회에서 '녹화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 협정서는 우리 인천이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천을 푸르게 300만그루 나무심기' 범시민 운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다. 안상수 시장과 기독교대한 감리회 중부연회 웨슬리사회봉사단 전양철 단장은 '녹화협정서'를 체결하고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의미인 '희망의 숲' 조성에 적극 참여하며 ▲시민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해 푸른인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것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기 위해 나무를 더욱 사랑하고

가꾸는 일에 정성을 다할 것 등을 다짐했다. 이에따라 우리시와 중부연회는 '희망의 숲'의 일정부지(2~3천평 규모)를 할애해 기독교봉사단 회원의 식수동산인 '웨슬리 동산' 조성에 협조하기로 했다.

문의 _ 시 녹지조경과(440-3662)

해외 화교자본 유치 통한 차이나시티 건설 본격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31일 오후 인천시청 대상황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회장 원국동)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차이나시티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영종도 일원 약 100만 평의 부지에 국내외 자본 20억불을 유치해 주거·상업·공공시설이 어우러진 신시가지 'Rich Valley(리치밸리)'를 개발한다는 것. 이를 위해 한국중화총상회가 해외 화교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화교자본 투자에 대한 창구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인천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지구에 해외 화교자본 유치가 활발해져 아시아 최고의 고품격 차이나시티 건설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리치밸리 내 상업시설 35만평은 해외 화교자본 유치의 전략적 거점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화상(華商)들과 한국 기업인들의 네트워크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중화총상회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외국인투자자와 함께 1년 이내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8차 세계화상대회>때 리치밸리 건설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리치밸리는 미화 50~200만불 가격대의 고급빌라가 건설되는 주거시설(30만평)과 차이나타운, 호텔 카지노, 특급 호텔, 백화점, 쇼핑센터 및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상업시설(35만평), 도로, 공원부지, 공원시설, 학교(초, 중, 고), 외국인병원 및 국제종합대학이 들어서는 공공시설(35만평) 등으로 조성된다. 문의 _ 경제자유구역청 관광문화과(450-7302)

금호팻컨스, 정상으로 날다



'만년꼴찌'라는 별명이 늘 붙어다녔던 인천연고 여자프로농구단 금호생명 팻컨스가 우리금융그룹배 2004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의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창단 6년만에 처음 올라보는 정상이다. 금호생명은 지난 4월 2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4회 우승팀이자 이번 대회 정규리그 1위팀 삼성생명을 73-68로 꺾었다. 정규리그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뒤 챔피언 결정전까지 오른 금호생명은 종합전적 3승1패로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린 것이다. 금호생명의 포인트가드 김지윤(13점, 4어시스트)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 가진 기자단 투표에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금호생명은 겨울리그를 앞두고 지난해 말 김태일 감독을 선임하고 김지윤, 이연주 등 스타급 선수를 영입하는 등 대대적인 변신을 시도해왔다.

시 여성복지관, 지방기능경기대회 메달 석권

우리시 여성복지관이 2004년 지방기능경기대회의 메달을 석권했다. 지난 4월 7일부터 7일간 열린 이번 대회에 자수, 한복, 드레스메이킹, 요리 등 4직종에 걸쳐 25명의 선수가 출전한 여성복지관은 자수, 한복부문에서 금·은·동·장려상을 수상했다. 또 드레스메이킹 부문에서는 금·은·동상을, 요리 부문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해 총 12명이 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성들의 취업대비를 위한 직업전문교육기관인 여성복지관은 매해 수많은 기능인을 양성하는 '여성기능인의 산실'로 자리잡았다. 지난 2003년도에도 인천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수자수 외 3개 부문에 출전해 금·은·동 및 장려 등 총 10명이 수상했으며 전국대회에서도 수자수부문에서 금메달, 기계자수 부문에서 동메달을 획득, 인천시 기관별 입상실적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문의 _ 시 여성복지관(440-6557)

4월의 모범 자원봉사자 및 단체 선정



우리시는 4월의 모범자원봉사자와 단체로 최정숙씨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대학생봉사단(사진)을 각각 선정했다. 최정숙씨는 지난 98년 2월부터 매주 일요일 동인천동사무소 앞에서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급식봉사활동을 하는 등 주변 이웃을 돌보고 있으며 이 모습에 감동한 동네 이웃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해 현재 자원봉사자 19명과 그들 자녀 8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모범 자원봉사단체로 선정된 청소년자원

송도신항 건설 위한 MOU 체결



인천 송도신항(남외항)에 대한 외자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우리시는 지난 4월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세계적 항만개발회사인 미국 파인사와 독일 힌네베르그사의 합작법인(P·H)과 송도신항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이들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2009년까지 1조8천억원을 투입, 송도신도시 남쪽에 12선석(선석 한 개당 5만톤급)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및 136만평 규모의 배후 단지 등을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형태로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는 대신, 향후 일정기간(최소 25년) 부두운영권 등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양해각서 체결 뒤 앞으로 P·H컨소시엄 주관으로 현지 파트너 선정 및 법인 설립과 함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투자의향서를 제출, 승인이 나면 비관리청 항만공사추진 우선권을 얻게 된다. 이어 오는 7월경 우리시와 합작법인이 비용(30만\$)을 공동 분담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2006년 하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이다. 지역현안이었던 송도신항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 왔으며, 정부에서도 외자 유치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의향을 표명하는 등 시의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결과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됐다. 문의 _ 시 항만공항지원과(440-3380)

봉사센터 대학생 봉사단은 96년부터 청소년봉사활동 교육 보조 및 활동배치, 모듬별 활동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지난 2003년 5월 열린 청소년금연건강마라톤대회에서는 안전지도 및 식수·기념품 배포, 대회 코스 지도, 경기장내 주변정리 등 봉사활동을 했고 해마다 사랑의 산타 봉사활동을 통한 희망의 메신저 활동과 장애아동 돌보기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문의 _ 시 청소년자원봉사과(440-3963)

제7회 인천시 과학기술상 수상자 발표

우리시는 지난 4월 21일 '제7회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상' 수상자를 최종 발표했다. 과학상 부문 영예의 대상은 '비선형 광학현상이 완전광통신, 완전광논리 및 집적형 광자공학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활용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이일항 인하대학교 교수가 선정되었으며, 부상으로 는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었다. 이교수의 연구는 광통신분야에서 핵심현안 중의 하나인 통신용량 한계극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장려상은 '생물정보학 데이터의 시각화'를 연구한 한경숙 인하대학교 교수

웰컴 투 인천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지난 4월 1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천을 방문했다. 안상수 시장은 강 장관에게 건설교통을 비롯해 항만분야·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등 시정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 산둥성 타이안(태안)시장 일행

중국 산둥성 자웨이 타이안(태안)시장을 비롯한 일행이 지난 4월 7일 인천시청을 방문, 안상수 시장을 예방하고 양 도시의 우호교류 사업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라오스 부총리겸 외교장관

지난 4월 12일 쉰새뱃 령새뱃 라오스 부총리겸 외교장관이 인천시청을 방문해 안상수 시장을 예방한 뒤 경제자유구역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송도 경제특구지역과 GM대우 자동차 공장을 견학했다.

일본 기타큐슈 시장

자매도시인 일본 기타큐슈시 쓰에요시 코이치 시장이 지난 4월 13일 우리시를 방문했다. 또 중구 영종동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항만공항물류 및 여객수송활성화를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양 도시 간 우호증진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주한 헝가리대사



이스트반 토르자(Istvan TORZSA) 주한 헝가리 대사가 지난 4월 16일 방인했다. 이날 시장 접견실에서 안시장은 이스트반 바코스(Istvan Bakos) 상무관을 포함한 예방자 2명에게 우리시의 시정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관계를 긴밀히 다져나갈 것을 요청했다.

Incheon Morning Academy

강좌 개설

우리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아침 7시마다 'Incheon Morning Academy' 강좌를 개설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과학기술상'은 그 동안 새로운 과학지식과 신기술 창조에 노력한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새로운 지식확산을 촉진해서 지역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해 왔다.

문의 _ 시 과학기술과(440-3042)

과학기술상'은 그 동안 새로운 과학지식과 신기술 창조에 노력한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새로운 지식확산을 촉진해서 지역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해 왔다.

문의 _ 시 과학기술과(440-3042)

출범을 계기로 인천의 공직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지역공동체 의식 배양은 물론 지식·정보의 무한경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균형적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다. 강사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을 통해 국내·외의 학계·경제계·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청할 예정이다. 우선 첫 강의로 지난 4월 22일 목요일 아침 7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국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이자 한국 해양문화연구소장인 윤명철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인천지역의 역사적인 역할과 21C 동아시아 신 질서'라는 주제로 인천 모닝아카데미의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에 처음 열린 아카데미 개강식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신경철 시의회 의장, 그리고 시민단체장, 시 간부 등이 참석했다.

우리는 '인천 모닝 아카데미(Incheon Morning Academy)' 시간에 직접 청강을 할 수 없는 시민과 공직자를 위해 강연을 녹화해 시 홈페이지에 동영상파일을 제공하고, 시 본청 각 사무실에는 자체 유선방송을 통하여 강좌를 중계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총무과(440-2529)

고교생들

'실미도' '천국의 계단' 현장체험

우리는 지난 4월 10일 관내 남녀 고교생을 대상으로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의 현장을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다. 잠재적인 홍보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공무원 및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팸투어 등을 실시한 바 있는 우리는 이번에 모두 56명의 학생을 초청, 영화 '실미도' 촬영지와 SBS 드라마촬영장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의 '천국의 계단'을 현장체험하는 행사를 가졌다. 참가자는 시교육청을 통해 인천시 80개 남녀 고등학교에서 학생 각 1명씩 선발했다.

문의 _ 시 관광진흥과(440-3310)

택시 교통카드 우수사용자 포상

우리는 선·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택시요금 지불수단을 권장하고 교통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교통카드 이용승객 및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교통카드 우수사용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달의 포상대상자는 법인택시 33명, 개인택시 16명 등 총 49명으로 운전 기사에게 30만~5만원권 상품권을, 택시교통카드를 사용한 승객 100명에게는 교통카드 1만원권을 각각 지급했다. 이달의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개인택시운전자 박성욱 씨(인천30바9730)는 교통카드 사용을 권장해 3월 한달 동안 229건의 최다사용자로 개인택시부문 1위로 선정되어 상품권(30만원)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법인택시의 경우는 한성운수의 인천31바7837 운전자가 185건을 사용하게 해서 1위를, 인천31바7865운전자가 2위로, 1위~5위까지 모두 한성운수 운전자로 선정되어 교통카드 사용 권장 우수업체로 부상하고 있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440-3911)

도시철도 연장사업 종합안전대책 설명회

도시철도기획단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건설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난 4월 13일 설명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기본설계내용을 공개했다. 이 종합안전대책은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강화된 중앙 및 인천시 자체 대책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감을 높이는데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전동차 분야를 비롯해 기계, 건축, 전기, 통신분야에 걸쳐 총 43건의 종합안전대책이 발표됐다. 전동차의 경우 내장판은 알루미늄계와 페놀계 판넬을 사용하고 전동차의 의자, 연결통로막, 바닥재, 단열재 등 모든 내장재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한다. 또한 내

인천시대표단 중국 방문

중어선 불법조업 대책 단호히 요청



심양시장과 만나 양도시 교류에 대해 논의



단동산업단지 입주업체 방문

피해지역인 우리시의 시장과 웅진군수, 시의원, 인천해양경찰관계관 등이 직접 요녕성과 단동시의 지도자를 만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건의를 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안상수 시장은 주심양 총영사관 총영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민감한 현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요녕성장과 단동시장은 현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실행하고 앞으로 인천과 요녕성간의 교류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협조와 조치를 하겠다고 확답했다. 논의도중 웅진군수가 미리 준비한 피해관련 CD자료와 건의문을 전달해 피해지역 어민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부탁하기도 했다.

단동산업단지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시찰, 현지기업 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단동단지 활성화와 관련, 안시장은 "앞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동북3성 개발과 북한개방 등의 주변여건 변화에 대해 요녕성과 단동시 정부의 기업가적 마인드를 제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인천시와의 실질적 지원마련을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에는 심양시장(陳政高)과 조찬을 함께 하며 5월 심양한국주간행사등 양도시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문의 _ 시 국제통상과(440-2830)

장재의 시험규격에 화염전파, 연기밀도, 독성 등의 항목을 추가 함으로써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전동차로 제작기로 했다. 또 전동차 객실내에는 최신벽걸이형 액정표시(LCD : liquid crystal display)

인천시장을 단장으로 한 인천시대표단이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간 요녕성, 심양시, 단동시를 차례로 방문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단동인천산업단지 등 현안 사항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방문에서 시 대표단은 요녕성 장(張文岳)과 단동시장(陳鐵新) 및 주요 지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단동산업단지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 등에 대해 중국 정부측에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요청하고 이에 대한 확답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서해5도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남북한의 민감한 사안으로, 국무총리 및 외통부에서 중국측 중앙정부에 단속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한국측

동영상승객안내시스템을 설치해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긴급사항, 시정정보, 뉴스속보, 광고방송 등의 동영상 정보를 제공한다. 비상사고 발생시 동일선로 및 반대선로의 전동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

는 열차자동정지시스템을 도입하며, 전동차 객실내 소화설비 증설과 긴급상황시 승객구조용 응급장비를 비치하는 등 안전하면서도 첨단 시설을 고루 완비한 전동차로 제작할 계획이다.

정거장 설비분야에서는 화재시 연기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제연용량을 강화하고 유독가스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제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정거장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연장구간 정거장에 전밀폐형 스크린도어(PSD : Platform Screen Door)를 설치하여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투신·자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승객안전과 쾌적한 역사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_ 도시철도기획단 차량설비과(451-2826)

검단 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지난 4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우리시는 검단 하수처리장건설에 민간부문 사업제안자인 (가칭)검단엔바이로주식회사와 사업비 및 사업시행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주)한화건설 김현중 대표이사, 안상수 시장, 프랑스 베올리아워터 앙투완 프레로 회장, (주)두산건설 오세욱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인천지하철 요금 청소년 20% 할인
인천지하철의 청소년 이용요금이 5월 1일부터 중고생과 같이 할인된다. 우리시는 정부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오는 5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청소년증을 소지한

인천 IT업체 유럽시장으로



우리시의 정보통신업체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CeBIT 2004'에 참가, 1,324만불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지역 정보통신업체 10개사를 선정해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우리시는 한국관 내에 인천관을 별도로 구성해 개막 첫날 (주)멀티채널랩스(대표 김중수)에서 첫 번째 계약(325만불)

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 박람회가 폐막될 때까지 모두 5개사에서 총 1,324만불(19건)의 계약이 체결됐고 939명의 바이어와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어 앞으로도 많은 계약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MBC방송국 및 루마니아 국영방송 등에서 인천관 참여업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BM텔레콤과는 개별 인터뷰를 하는 등 이번 박람회를 통해 인천 정보통신산업의 위상이 크게 올라서게 됐다. 이번 CeBIT 2004 박람회에는 전세계 64개국에서 6,440개사의 업체와 67만여명의 바이어가 참관했다.

문의 _ 시 국제통상투자과(440-2863)

13~18세 청소년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중·고생과 동일하게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청소년들은 정액권(5,000원·1만원·2만원권)을 구입하면 된다.

시 소비자생활센터 개소 1년, 소비자보호전담기구로 정착



우리시가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로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인천광역시 소비자생활센터'가 개소 1년을 맞았다. 소비자생활센터는 지난 해 4월 21일 문을 연 이래, 1년 동안 총 5,614건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 구제, 총 22건, 2,100명에 대한 소비자교육, 소비자경보 발령 2회, 조사연구 3회, 총 4종 42,600부의 자료발간, 중앙 및 지역언론보도 80여 회의 실적을 기록했다. 1년 만에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한 것이다. 소비자생활센터는 올 상반기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해 다양한 소비자정보와 온라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며, 소비자 보호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인천광역시 소비자보호연보 제작, 소비자피해 빈발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경보 발령, 노인·청소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 ※ **상담 안내**
- **상담방법** : 전화, 팩스, 방문
-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공휴일, 매월 4째 토요일 휴무) 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1시
- **전화** : 442-9872, 팩스 : 442-9873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27번지 한미은행 2층 인천광역시 소비자생활센터

문의 _ 시 경제정책과(440-2798)

의 정 소 식

인천시의회와 천진시 인민대표대회간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13일 시의회 홍보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인민대표대회와 상호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의향서 체결은 인천광역시의회와 천진시 인민대표대회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양 도시의 의회를 대표한 시의회 신경철의장과 천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천홍지양(陳洪江) 부주임간에 이루어졌다.

이날 시의회 신경철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도시 의회간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인천시와 천진시는 물론 한국과 중국 두나라 간의 우호교류가 더욱 증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호교류협정서 체결을 마친 천진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은 안상수 시장을 예방하여 환담을 나눈 후 송도신도시 홍보관과 문학경기장을 시찰했다.

해외시찰을 통한 상임위원회 활동



기획행정위원회 _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간 심양·단둥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초청으로 대련·단둥·심양시를 방문, 인민대표대회와의 우호교류, 인천단동산업단지 실태파악, 중국 경제개발구 현지공단 시찰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박창규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고 김성숙, 이근학, 전승기 의원과 전문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요녕성 심양·대련·단둥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의회차원에서의 우호교류협력과 우리시가 단둥에 조성한 금

천공업구 단동산업단지 내의 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심양시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장택연, 대련시 인민대표대회 주임 이영금, 단둥시 인민대표대회 주임 진명월 등과 회담하였다. 또 심양시 철서공업신구와 훈남신구(심양하이테크산업개발구), 대련시 경제기술개발구 및 대련보세구·수출가공구, 단둥변경경제합작구를 방문해 각 관리위원회 주임으로부터 투자시 지원시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시찰하였다.



문교사회위원회 _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 안병배)에서는 지난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 및 일본 동경을 비교·시찰하였다. 문교사회 위원장을 필두로 김덕희, 이주삼 의원과 전문위원 등 7명이 외국선진도시의 물류시설, 경제특구, 국립공원, 유명관광지 등을 직접 비교·시찰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으로 동북아의 국제중심도시 및 세계물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의 물류와 관광산업 발전방향을 비교·모색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시찰은 싱가포르의 국제항만시설 및 물류시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각종시책 및 추진사항을 비교 검토하고, 국립테마공원 및 유명관광지를 시찰하여 인천의 관광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다. 이번 선진국 비교·시찰로 인천의 문화·관광·교육 등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과 넓은 견문을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위원회 _ 산업위원회(위원장 박용렬)는 지난 2월 9일부터 18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최병덕, 황창배, 이범성, 이성욱, 김성숙 의원과 전문위원 등 10명이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4개국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2003년 8월 송도, 영종, 청라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지정과 더불어 투자유치 및 개발계획, 그리고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체 운영시 애로사항 및 현지 운영 Know-how 등을 파악하였고, 국가별 무역관(KOTRA)을 통한 각종 자료를 확보해 앞으로 인천의 중소기업이 진출시 참고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동유럽의 선진적인 복지정책과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중세유럽의 문화유적 및 거리분위기에 맞게 조성된 도시경관, 재래시장 등을 시찰하는 등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보 뱅 크 | 어린이극 전문공연장 · 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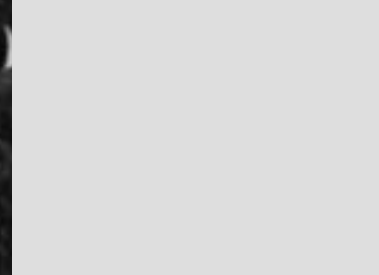
이 극장에선 어린이가 ‘주연배우’

어린이의 눈높이에 딱 맞는 어린이 전문연극을 올리고 있는 소극장과 극단이 있다.

언제 찾아도 재미있는 어린이 연극 세계에 빠져볼 수 있는 곳들이다.

대부분의 소극장은 정기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일년 내내 공연을 올린다.

또 관극회원 제도를 운영해서 회원이 되면 저렴하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길도 있다.



어 린 이 극 전 문 공 연 장

소극장 보물상자 _ 교육극단 〈보물상자〉가 운영하는 150석 규모의 극장이다. 교육연극만을 10년 넘도록 무대에 올려온 베테랑 극단 답게 12명의 단원들이 재미와 교육을 두루두루 갖춘 극을 준비해 올린다. 단 순히 잘 알려진 명작보다는 IQ와 EQ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창작극을 교육극 전문작가들이 직접 써서 무 대에 올리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참신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그동안 회원이 예약하면 그 날짜에 맞추서 공연을 하는 식으로 운영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누구나 공연장을 찾으면 극을 볼 수 있게 대상을 넓혔다. 그 첫 작품으로 5월 말부터 ‘게임’을 올린다. 인터넷에 빠진 주인공을 통해 게임의 장단점 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평일엔 단체 위주의 공연이, 주말엔 일반관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 오른다.

문의 _ 보물상자 (인천지하철 선학역 3번 출구, 용업빌딩4층 813-8040)

동아아트홀 _ 2년여 전 부터 꾸준히 알찬 공연이 오르고 있는 400석 규모의 공연장이다. 김스아트홀을 운영하고 있는 극단 〈야호〉가 인수받아 지난 4월 부터 운영하고 있다.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아기공 룡 돌리’ 공연을 시작으로 5월 11일 부터 5월 23일까지는 극단 〈개구쟁이〉의 환경뮤지컬 ‘두리의 숲 속 여 행’이 무대에 오른다. 곤충들의 다양한 캐릭터를 엿보며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내 용으로 꾸며진다.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극단 〈길〉에서 ‘호랑이 이야기’라는 뮤지컬을 올린다.

문의 _ 동아아트홀 (지하철 부평역 북부역쪽 출구, 롯데백화점 대각선 방향 522-7002~3)

김스아트홀 _ 어린이극 전문극단 〈야호〉가 지난 2001년 9월에 문을 연 김스아트홀(400석)에서는 요즘 아이들의 취향에 맞게 템포가 빠르고 리듬감이 있는 뮤지컬 위주의 공연이 많이 오른다. 극단 야호가 직 접 준비한 극은 물론 서울이나 분당, 일산, 안산 등 수도권 등지의 아동극전문 극단이 초빙된다. 특히 정 통연극은 물론 마당극이나 뮤지컬, 마임 등 다양한 공연장르를 맛보고 아이들이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 질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연극을 배운 뒤 직접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어린이 연극교실〉도 6기째 운영되고 있다.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아동극 페스티벌도 열린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극단 〈아이들세상〉이 뮤지컬 ‘미녀와 야수’를 공연하는데 이어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는 극단 〈환타 지아〉에서 준비한 마당극 형식의 뮤지컬 ‘금강산호랑이’가 공연된다.

문의 _ 김스아트홀 (인천지하철 인천터미널역 하차, 김스클럽 10층 434-7008)

그랜드아트홀 _ 작년 5월에 문을 연 어린이 전용극장이다. 서울 신촌의 어린이전용극장인 ‘동방아트홀’ 을 운영하고 있는 동방극단이 인천의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문을 연 이래 1~2주에 한번 꼴 로 그동안 30여 편의 작품을 꾸준히 올려왔다. ‘빨간 머리’ 처럼 명작은 물론이고 창작극과 ‘금강산 호랑 이’, ‘행복한 장승’ 등 우리 옛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전통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동방극단〉의 ‘빨간머리앤’이 오를 예정이고 5월 11일부터 28일까지는 극단 〈예인〉의 ‘소가 된 게으름뱅이’,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는 〈소꿉극단〉의 ‘오즈의 마법사’가 오 른다.

문의 _ 그랜드아트홀 (인천지하철 임학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그랜드마트 지하 1층 542-6504)



플라아트홀 _수봉공원에 동지를 틀고 있는 플라아트홀은 어린이 뮤지컬 상설공연장이다. 지난 2001년 창단한 극단 조이가 지난 해 9월 문을 열었다. 250명 정도가 들어설 아담한 규모의 아트홀에서는 월요일만 빼고 매일 공연이 열린다. 지난 4월엔 ‘보물섬’이 공연됐고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마당극 ‘흥부와 놀부’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단체(평일공연)로 공연을 보는 관객들은 관람표로 수봉공원에 있는 놀이기구 가운데 하나를 공짜로 탈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의 _ 플라아트홀 (남구 수봉공원 내 864-8052)

희망소극장 _ 희망백화점 4층에 있는 희망소극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영화와 연극, 인형극 등을 올리고 있는 공간이다. 150여 석의 규모의 공간에서 그동안 주로 영화를 상영해왔지만 앞으로는 가족들을 위한 뮤지컬 위주의 공연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4월 27일부터 5월 23일까지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를 소재로 한 ‘빨개벗은 임금님’이 무대에 오른다.

문의 _ 희망소극장 (인천지하철 간석5거리역 하차 도보 5분, 희망백화점 4층 431-7774)

그밖에도 전문공연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극단이 있다. 그 가운데 어린이극 전문 극단 <꼬마세상>과 극단 <십년 후>가 대표적이다.



꼬마세상 _ 지난 97년에 창단한 극단 <꼬마세상>은 어린이 가족을 위해 뮤지컬, 인형극, 판토마임, 기타 행사 등 각종 공연을 100회 이상 공연해 온 극단이다. 주로 뮤지컬을 올리고 있는데 난타뮤지컬, 환경뮤지컬, 가족뮤지컬, 인형뮤지컬 등 다양하게 올리고 있다. 그동안 인어공주처럼 잘 알려진 동화나 흑부리 영감, 호랑이와 오누이 등 고전, 그리고 깨비들의 난동 같은 창작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선보여 왔다. 안양에 70석 규모의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꼬마세상은 내년에 200석 규모의 소극장을 문학동에 오픈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5월 4일과 5일 이틀동안 계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족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6. 4(금)~6. 5(토) / 인천종합예술회관 6. 17(목))을 올릴 예정이다. 극단 꼬마세상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면 무료초대권을 준다. 장애인·노인·소년소녀가정·기초생활 수급자(저소득)는 무료로 볼 수 있다.

문의 _ 016-2500-560, 016-774-0014, <http://cafe.naver.com/ggomasesang.cafe> (네이버 카페 - 꼬마세상)



극단 십년후 _ 올해로 창단 10년을 맞은 극단 <십년 후>는 정통 성인극을 비롯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뮤지컬이나 영어아동극을 올리고 있는 극단이다. 지난 95년 2월부터 10년째 영어연극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아이들이 직접 한 학기 동안 연극을 배우 뒤 방학때 무대에 올리는 식이다. 영어연극단은 1,2월과 8월에 각각 모집해서 8월과 1월에 각각 공연을 올린다. 지난 4월 1일부터 ‘오즈의 마법사’를 대본으로 봄 학기를 개강했다. 그동안 ‘흥부전’, ‘스크루지’ 등 주로 잘 알려진 외국명작을 각색하거나 우리 고전 위주로 공연을 올렸지만 올해부터는 수채화같은 창작동화극을 주로 올릴 계획이다. 영어연극은 아니지만 가족극인 ‘삼신할머니와 아이들’을 오는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올릴 예정(계양문화회관 6월 15일~20일)이다.

문의 _ 514-2050, 514-2150

글 _ 박상영

십년이 훨씬 넘도록 한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 있다면, 일단 믿고 볼 일이다. 더욱이 그 일이란게 돈되는 것도, 딱히 표나는 일도 아니고 그저 봉사하는 마음으로 남들 뒤치다꺼리하는 귀찮은 일이라면야 더 말할 것도 없겠다.

권영순(65세) 씨에게는 얼마 전까지 한국소비자연맹인천광역시지회장(이하소비자연맹인천지회)이라는 타이틀이 붙어다녔다. 한국소비자연맹이란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직접적인 피해구제를 하거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 1991년 2월에 부임해서부터 지난 2004년 2월까지 꼬박 13년 동안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으니, 권 씨가 보낸 그 세월이 바로 인천의 소비자운동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10여 년을 한결같이 출퇴근 하던 생활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좀 여유를 즐기고 있을까 싶었는데 권 씨를 찾아간 날, 그녀는 외출에서 막 돌아온 참이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얼마 전 서울로 분가한 아들 내외 집에 다녀오는 길”이라 했다. 같은 아파트에 살다 정이 든 탓에 아직도 할머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세 살배기 손주를 돌보려 아침과 저녁 하루 두차례씩 서울 광화문까지 다녀오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덕분에 모처럼 맞이하는 휴식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다고 푸념이지만, 그녀의 낯빛은 더없이 밝다. 그녀가 소비자연맹인천지회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때인 90년대 초반 하더라도 인천은 소비자운동의 불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10년을 넘기는 동안 인천지부는 전국 180여개 소비자단체 가운데 상담건수, 처리율 등의 면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훌쩍 성장을 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의 털털한 성격이 한몫을 했다. 분쟁을 해결하는데 특별히 담당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게 그의 생각이었다. 회장이라는 자리를 그저 감투로만 여겨 책상만 차지한 채 앉아있는 타입이 아니어서 전화상담이든 직접 찾아오는 내방객이든 가리지 않고 직접 상담 일선에 나섰다.

그의 전문역할은 다른 상담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분쟁을 도맡는 ‘해결사’ 역할. ‘인천 회장’ 하면 다들 무서워 할 정도로 소신과 독심을 갖고 밀어붙여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로 유명했다.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상담 온 소비자가 처한 상황이 바로 내 자신이 당한 문제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하는 것이었다.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노인들이 광고에 현혹되어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소리에 솔깃해 다단계업체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 등 소비자가 잘 모르거나 순간적인 실수로 저지른 문제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어 구제하려 애썼다. 일전엔 남편의 사업실패와 외도로 우울증에 빠진 주부가 1200만원 어치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가 이를 다시 환불 받을 수 있게 해결해준 일도 있다. 그 주부의 심정이 되어 ‘반호스, 반협박’으로 업체를 설득해 일구어낸 결과였다.

이 모든 뒤치다꺼리를 해주는데 받는 댓가는 없다. 그런만큼 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가장 값진 수수료로 여겼다. 하지만 그네들의 수고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알미운 소비자’를 만날 때는 가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단다.

몇 년전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통증이 심해지는데다 한쪽 눈에 녹내장까지 겹치는 등 건강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회활동을 접게 된 만큼 앞으로 당분간은 ‘그냥 놀고 싶다’는게 그의 계획. 하지만 그가 마냥 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램을 덧붙이는 걸 보니 그가 몸을 추스린 뒤 돌아올 자리도 대중 짐작이 간다. 그곳이 별 잘 드는 양지가 아닌 ‘그들’인 것 만은 분명하다.

글 _ 박상영 · 사진 _ 김정식

차 한 잔 |
권영순(전 한국소비자연맹인천지회장)

“소비자 위해
산 세월,
후회없어요”



아이의 권리 찾아 줍니다

김민식(가명 · 남 3세)군은 인천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일시보호시설인 신나는 그룹홈에서 지내고 있는 어린이다. 김 군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길병원 응급실에서 1391(일상의 구원) 아동학대신고전화로 신고가 접수된 때문이다. 아버지의 내연녀와 함께 지내던 민식이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진 내연녀에게 호스로 얼굴에 물을 뿌리고, 변기에 처박아 놓기도 하는 등의 학대를 당하다가 마침내 기절해 길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것이다.

광범위한 아동학대의 범위

이처럼 TV나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학대받는 어린이들의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이다.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주고,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곳이 바로 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정용충)다. 센터는 지난 2000년 우리시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선정되어 24시간 연중무휴로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고 아동학대예방센터가 학대받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보호만 하는 곳은 아니다. 아동학대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훈련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것이므로 부모들이 그 역할을 잘 하도록 돕고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궁극적인 취지이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못 배우고 가난한 부모들이 자녀를 때리거나 못살게 구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은 부모들이 자신의 잘못된 신념이나 생각의 틀에 아이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동학대”라는 것이 아동학대예방센터 홍현정 팀장의 설명이다.

보호에서 치료까지 원 스톱 서비스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1391 전화나 사이버(<http://www.ic1391.org>)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나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장 조사를 하고 응급상황인지 단순 아동학대 사례인지

를 판정한다. 응급아동학대의 사례인 경우 바로 센터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쉼터에서 3개월간 보호하며 치료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도록 돕는다. 이 기간에는 의료지원 서비스는 물론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대와 관련된 원인을 찾아 아동을 치료한다. 또 미술, 놀이, 음악치료 등 다양한 상담치료를 통해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자아를 존중하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한편 부모교육과 상담도 실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정서적, 신체적인 안정을 찾게되고 부모들은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3개월 간 쉼터에서 지낸 후에는 아이의 상황에 따라 가정으로 돌아가도 좋을지, 아니면 장기시설로 아이를 보낼 것인지 판정한다.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매달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정상적인 환경에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관심을 늦추지 않는다. 단순한 아동학대 사례일 경우에는 가정 내에 보호하도록 하고 부모 교육을 한다.

신고된 사례가 아동을 학대한 것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한 달에 한 차례씩 운영되는 사례판정회의를 거친다. 교육, 법률, 의료, 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0인의 판정위원이 엄정하게 아동학대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정용충 소장은 “우리 어른들이 아동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동이 가정이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한다. 이밖에도 센터에서는 사이버상담과 아동학대 수호천사사업, 홍보와 교육사업을 통해 아동학대가 근본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센터 _ 국번없이 1391 (<http://www.ic1391.org>)

글 _ 정경애 · 사진 _ 김정식

훈육위한 과도한 체벌도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어른들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치료를 받아야하는 아동에게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유기와 방임의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신체·정서·성학대·방임으로 나뉜다. 신체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로 때리기, 흔들기, 화상입히기, 물어뜯기, 질식시키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과도한 체벌을 가하는 것도 신체학대에 포함된다. 갓난아기를 달래기 위해 과도하게 흔들어대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아동학대라는 것이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 부모가 아동에게 사랑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거나 위협하는 것, 소리지르는 것, 욕설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또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로 성인이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 아동에게 강제로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매무, 강간 등의 직접적인 접촉, 음란물 보여주기, 성기 노출 등이 해당된다. 방임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적절한 음식, 의복, 의료적인 보호와 같은 아동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방대하다. 어른들이 잘 모르고, 무심결에 하는 행동에도 어린이들은 상처받을 수 있고 자칫하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사진 속의 어린이는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그 대회 아직도 유효한가?

‘미스코리아 감이네’ 하는 소리가 더 없는 찬사였던 시절이 있었다.
‘미의 대제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5월의 축제였다.
왕관을 쓰고 꽃다발과 트로피를 안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감을 말하는 미스코리아 진선미들은
가문의 영광뿐만 아니라 미용실의 영광이기도 했다.
사진은 1962년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 대회 모습이다.
후보들의 체형은 요즘 흔히 볼 수 있을 정도의 평범한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체형은 점점 서구인처럼 ‘진화’ 되고 있다.
전쟁통에도 열릴 만큼 생명력이 질렸던 미인선발대회는
최근에 ‘안티미스코리아대회’가 열리는 등 그 유효성이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鉉>

세원정의 감자탕



“감자탕을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연구하다 보니 감자탕 집까지 차리게 됐다”고 할만큼 세원정 주인 송해진씨는 알아주는 감자탕 전문가이다.
까다로운 송씨 입맛에 맞게 요리하다 보니 오늘 그 유명한 감자탕 맛이 됐다는 것.
뭐니뭐니해도 중요한 건 육수다. 순수한 돼지사골로만 국물을 만드는데 약한 불에서 꼬박 하루를 푹 곤다. 화학조미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대기도 소금이 아닌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으로 만든다.
빠다귀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고기는 과일 등 12가지 재료를 넣어 버무린 겨자소스에 찍어먹는데, 그 맛이 단백하고 깔끔하다.
얼갈이 우거지와 콩나물, 감자, 숙갓, 깻잎, 팽이버섯, 대파 등 야채도 듬뿍 들어가 텁텁하지 않고 개운한 맛이 오래 오래 남는다.

- 감자탕 15,000원(소)
- 남구 주안8동 1486
- 425-8254
- 100석
- 30대



송도장수촌의 장어구이



민물장어는 예로부터 보양·강장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요즘엔 자연산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양식산도 흔치 않은 편인데 수입장어는 아무래도 국내 양식산보다 살이 푸석하고 맛이 떨어진다.
송도장수촌은 장어를 군산에서 공수해 오기 때문에 일단 장어 자체의 맛이 좋다.
장어구이의 맛을 좌우하는 또 다른 요인은 소스.
장어요리만 25년 동안 해온 송도장수촌의 주인은 장어 뼈와 머리를 다시마, 계피 등 한약재와 함께 푹 우려내 소스를 만든단다.
취향에 따라 고추장구이, 간장구이, 소금구이로 먹으면 된다.

10일 전에 예약하면 자연산 바다장어도 맛볼 수 있는데 낚시로 잡기 때문에 가격은 양식장어에 비해 세배 가량 비싸다.

- 장어구이 40,000원
- 연수구 옥련동 563-9
- 834-4787
- 150석
- 5대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⑤ | 강화 고려궁지 (高麗宮址 · 사적 제133호)

아쉽기도...애답기도 한 고려 흔적

12년 동안 같은 아파트, 그것도 문을 서로 마주 보고 살면서 친자매보다 더 가까이 지내고 있는 이가희(승학초교 5학년)와 박세은(같은 학교 · 학년) 어린이가 손잡고 강화 문화재 탐방 길에 나섰다. 가희 엄마 이인용 씨도 함께 동행했다.

“에이, 이게 궁궐이야?” 고려궁지에 들어 선 대개의 사람들은 이런 속내를 숨기지 못한다. 가희와 세은이도 행하니 비어있는 궁터를 보고 적지 아니 실망하는 눈치이다. <태조 왕건> 드라마 덕분에 고려궁지라고 하면 경북 궁처럼 여러 채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있는 궁궐을 머리 속에 넣고 왔으니 무리도 아니다.

이러한 마음을 재빨리 헤아린 박정자 문화해설사는 서둘러 고려궁지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는 궁궐이 있던 터이지 ‘궁궐’은 아녜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려의 임금님이 살던 궁궐 자리인데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는 곳 이죠.”

몰밀 듯 몰려오는 침략군 몽골의 말발굽을 피해 고려 왕 고종은 1232년에 바다를 건너 이곳 강화로 피난 나왔다. 고려 조정은 급히 궁궐을 지었고 39년간 몽골과 대항하면서 강화는 고려의 임시 수도 역할을 했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지금의 궁궐터는 원래 규모보다는 많이 축소되었다. 고려궁지로 올라오는 큰길 부근 김상용 선생 순의비가 있는 곳쯤에 궁궐 남문이 있었으니 거기까지를 궁궐의 크기로 보면 된다. 현재의 고려궁지 출입문인 ‘승평문’은 옛 궁궐 남문의 이름이다.

‘사적 제 133호 고려궁지’라고 새겨진 비석만이 그 옛날 이곳이 고려의 궁궐터라는 것을 말해 줄 뿐이다. 항몽(抗蒙)의 기개를 느낄 수 있는 역사적 실체물이 없다는 게 못내 서운하다. 오히려 그곳에서는 조선시대의 숨결을 더 느낄 수 있다. 고려가 떠난 그 자리에 조선시대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알미운 프랑스군들

시계바늘은 순식간에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갔다. <외규장각>이라는 현판이 붙은 건물로 다가섰다. “외규장각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박정자 씨의 질문에 탐방 전날 미리 인터넷을 검색해 예습을 해온 세은이와 가희는 수첩을 뒤적이며 동시에 대답한다. “임금님 도서관이요.” “그래, 맞아요. 조선 정조 때 세워진 왕실도서관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국립도서관쯤의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1



2



3

외규장각은 서울에 있는 규장각의 서고가 넘칠 정도로 책이 많아지자 1782년에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으로, 왕립 도서관인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 역할을 하였다. 그 당시는 외부의 침입이 주로 북방이나 일본 쪽에서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강화도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에 세웠다. 그러나 구한말에는 강화도가 외세 침입의 주요 통로가 되었고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강화로 들어와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들을 훔쳐 갔다. 프랑스군

은 퇴각하면서 외규장각 도서 345권과 은괴 19상자 등의 문화재를 약탈해갔다. 그 중에는 현존하는 최대의 금속활자인 직지심경도 포함되었다. 직지심경은 직지심체요절이라고도 하는데 총 두 권으로 되어있고 한권은 우리나라에, 한권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

여봐라, 이방~

외규장각 아래쪽 담장 옆에는 종각이 하나 자리 잡고 있다. “장희빈의 짝꿍이 누구죠?” “장희빈?” 장희빈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숙종’이란 답이 나오기에는 다소 어려운 질문인 듯싶다. 높이 198cm, 밑지름 138cm, 두께 15cm의 보물 제11호인 강화동종은 숙종 때 만들어져 강화성 남문에 걸어놓고 성문을 여닫는 시각을 알리는데 사용했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은 이 종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려다 30톤이나 되는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곳(강화대교 부근)에 버리고 도망갔다. 자칫하면 파리 루브르박물관에서나 볼 뻔했던, 구 한말의 슬픈 역사를 담고 있는 종이다. 1995년까지 강화에 큰 행사가 있을 때 타종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금이 갈 우려가 있어 진짜 종은 강화역사관으로 옮겼다. 말하자면 고려궁지에 있는 것은 복사품, ‘짜퉁’이다.

발걸음을 종각 밑에 있는 ‘ㄷ’자형 한옥 건물로 옮겼다. “이·호·예·병·형·공”, “이·호·예·병...” 마루에 앉자마자 손녀뻘 되는 아이들은 박정자 해설사 할머니를 따라 손가락을 꼽으며 지방 관아 조직에 대해 주문 외우듯 암기했다. 이곳은 관아 중의 하나인 이방의 집무장소였던 이방청(吏房廳 시 유형문화재 26호)이다. 이방청은 온돌방이 8칸, 마루방이 12칸, 부엌이 1칸으로 모두 78평 가량되는 크기이다. 1654년 효종 5년에 건립해서 정조 7년(1783년)에 대대적으로 고쳐 지었다. 한때 이방청은 강화등기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4 5



6

탐방을 마칠 즈음 고요한 고려궁지 안으로 한줄기 4월의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 속에 역사의 향기가 실려 오는 듯 했다. 폴짝폴짝, 까르르 하면서 만나절 동안 고려궁지를 탐방한 아이들이 그 바람 속에서 고려와 조선 그리고 구 한말 까지의 숨결을 얼마나 느꼈는지 궁금해진다.

글 _ 유동현 · 사진 _ 김성환

찾아가는 길 _ 강화 읍내로 들어서 강화군청 길을 지나 오른편에 농협 팻말이 보이면 우회전 해 비탈길을 오른다. 언덕 끝까지 오르면 넓은 주차장과 승평문(昇平門)이라는 출입문이 보인다. 읍내 큰길에서 도보로 5분 거리다. 고려궁지를 둘러 본 후 근처 5분 거리에 있는 ‘강화도령’ 철종이 살았던 용흥궁을 비롯해 병자호란 때 폭약으로 자결한 우의정 김상응 순의비 그리고 100년 세월이 녹아 있는 성공회 강화성당 등 유적지를 함께 둘러보기를 권한다.

1 유익한 정보가 많은. 열심히 적자 **2** 이가희 엄마 이인용씨, 박세은, 이가희 그리고 ‘문화해설사’라는 타이틀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강화 알림이 역할을 해온 박정자씨(좌로부터) **3** 이방청 트락 **4** 강화동종 앞에서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는 말에 두 손을 모은 두 소녀 **5** 할머니에게 구수한 옛날이야기를 듣듯 이방청의 역사에 귀기울이는 아이들 **6** 아쉽지만 강화의 숨결을 느껴보자

항몽의 기개 서려있는 강도 궁터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입하자 고려 조정은 1232년(고종 19) 6월 16일 서울을 개성에서 강화도로 옮길 것을 결정한다. 불과 20여일 후인 7월 7일에 왕은 서둘러 바다를 건넌다. 강화도에 새 도읍을 건설했는데 그곳이 바로 강화군 강화읍 관정리에 자리잡고 있는 ‘고려궁터’이다.

그들은 두고 온 개성을 잊지 못해 산과 궁의 이름을 개성 때의 이름을 붙여서 위안을 삼았다. 강도(江都)의 주산을 송악산이라 칭하고 그 자락에 궁궐을 앉혔고 다른 지역에 연경궁, 수창궁, 용암궁 등 별궁을 세웠다. 송악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자락 견자산 기슭에 법왕사 같은 사찰을 비롯해 국자감, 태묘 등도 지었다.

강도 건설은 군인들과 각 지방에서 모은 백성들의 힘을 빌어 고종 21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돼 몽골의 제 3차 침입이 시작되는 고종 22년 이전까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무신들도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개성에서 목재를 실어와 견자산 부근에 궁궐에 버금가는 저택들을 지었다고 한다.

현재의 고려궁터는 궁궐이 들어서기에는 너무 협소할 뿐 아니라 아쉽게도 그곳에는 고려에 대한 흔적이 거의 없다. 39년간 몽골에 즐기게 항전했던 고려가 1270년 5월 몽골과 강화(講和)를 맺고 개성으로 돌아가면서 궁궐과 성의 대부분이 무너지거나 불타 없어졌다.



이 지면은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로 구성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찾아가 보고 싶은 문화재와 가고싶은 날을 적어 편지(우편번호 405-75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편집팀 앞, 전화 440-2072)로 보내주세요. 특히 강화군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참가한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1만원권 2매)을 드립니다.

‘옛 방식 그대로’ 옹고집으로 빚은 약술

술 즐기는 이들이 꼽는 명주축에 들려면 몇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마실 때 거부감 없이 부드럽게 넘어갈 것, 잔을 입에 댈 때의 그윽한 향기가 입안에 오래 남을 것, 취하도록 마셔도 뒤틀이 깨끗해야 할 것’. 인천의 전통민속주 ‘칠선주’ 라면, 이 세가지 조건을 두루 만족시킨다고 말해도 애주가들이 크게 토를 달지 않을 것 같다.

(주)마니산 술도가는 바로 이 칠선주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곳이다. 강화 길상면 길상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술도가 공장을 찾은 날, 공장 문턱을 넘자 술 못하는 이라도 한잔 생각이 간절해질 정도로 누룩익는 들끓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일제 시대때부터 막걸리를 만들었다는 공장터는 술도가 답게 큼지막한 술독들이 놓여있다.

마니산 술도가에서 칠선주를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겨울. 본격적인 판매는 올해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칠선주라는 이름의 인천전통주는 이미 2백년 전부터 있어 왔다. 바로 인주(인천의 옛 이름)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민속주로 궁중에 진상했던 술이다. 문헌상에도 그 기록이 자세히 나와있다. <규합총서>를 비롯해 <산림경제>, <임원십육지>, <양주방> 등에 ‘1777년 조선조 제22대 정조 원년에 빚었다’ 고 되어 있으니 적어도 2백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전통주인 셈이다.



칠선주에는 주재료인 햅쌀과 찹쌀 외에도 인삼, 구기자, 당귀, 산수유, 더덕, 갈근, 감초 등 일곱가지 약재가 들어간다. ‘건강보양주’란 별칭이 붙을 법 하다. 옛 사람들은 일곱가지 약재가 들어가는데다 ‘이 술을 즐겨 마시면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는 신선이 된다’ 고 믿어 칠선주(七仙酒)라고 이름했다고 전해진다.

일제 때 쌀 공출령으로 맥이 끊겼던 칠선주를 오늘날 옛맛 그대로 다시 복원시킨 사람은 바로 마니산술도가 공장장인 이종희씨. 그는 <양주방>에 나와있는 문헌기록을 토대로 연구와 양조실험을 계속한 끝에 지난 1980년 칠선주 제조 특허를 냈고 10년 만에 국세청 주류시험제조 승인을 받아 1990년부터 본격적인 제조에 들어갔다. 하지만 1996년 8월 개인 사정으로 제조를 중단했다가 7년 만인 지난 2003년 11월에야 다시 준비해 올 1월부터 본격 제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칠선주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감인 ‘16도주’로 싱겁지도 독하지도 않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전통 명약주답게 각종 문헌은 칠선주를 가리켜 ‘위장 및 간장을 보호하고, 식욕을 증진시키고, 빈혈, 두통, 신경통 등 통증도 적어지며, 구토, 숙취 등도 없게 되며, 속쓰림과 갈증이 없으며, 뒤틀이 깨끗함이 장점이며, 독특한 감칠맛이 있다’고 평한다.

마니산 술도가의 전 직원은 모두 7명. 쌀 푸대를 뜯는 일부터 마지막으로 병에 상표를 붙여 출고하는 일까지 일일이 그네들의 손을 거친다. 쌀을 씻어 불린 뒤 스팀에 쪄 식힌 다음 누룩과 버무려 15일 동안 발효시키고 두차례에 걸쳐 술을 짜내기까지 술 한병이 탄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여일 정도. 이 과정을 꼬박 사람손이 가는 옛 방식으로 매달린다. 달라진 게 있다면 항아리에서 스테인레스로 술담는 독의 재질이 바뀌었을 뿐이다. 입맛을 현혹시키는 감미료도 단 한방울 쓰지 않는다. 재래방식을 고수하는 그 옹고집덕에 소비자들은 옛맛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칠선주는 일명 남자술이라 불리는 푸른색병(플러스)과 여자술인 노란색병(마이너스) 두 가지로 시판된다. 두 술의 재료는 같지만 맛은 약간 다르다. 옛맛을 고스란히 재현해낸 남자술은 전통적인 약주맛을 그리워하는 노인들이나 중장년층이 즐길만한 술인 반면 여자술로 통하는 ‘마이너스’는 여성들이나 젊은 층의 기호에 맞도록 감초를 약간 더 첨가했다. 달작지근한 맛이 나기에 목구멍을 부드럽게 타고 넘어간다.

마니산 술도가의 규모는 아직 영세한 편이라 하루 술 공장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최대량은 1,500여 병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생산되는 전량은 업소용으로 판매돼 일반인들은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만 칠선주를 맛볼 수 밖에 없다. 내년부터는 규모를 늘리고 판매망을 넓혀 할인점이나 슈퍼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인천전통주 칠선주’가 슈퍼 진열대에서 다른 지역의 약주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누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계양도서관 _ ‘책벌레 어린이’ 들의 천국

계양도서관은 도서관이 없어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갈증을 느껴왔던 계양지역에 들어선 최첨단 시설의 도서관이다. 아동도서 10,179권과 일반도서 20,904권을 비롯해 210여 종의 정기간행물을 열람할 수 있는 계양도서관의 특화분야는 ‘환경’이다. 그에 걸맞게 환경관련 서적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지하에는 영화와 연극을 상영하는 계수나무홀과 식당, 매점 등의 시설이 있고 1층엔 인터넷과 DVD, 원문, 어학코너 등 정보검색과 각종 멀티미디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실을 비롯해 정보화교육장, 어린이 자료실, 나눔열람실이 있다. 2층엔 종합자료실과 학습실, 컴퓨터, 3층엔 총 580석 규모의 열람실이 있다.

계양도서관의 자량은 뭐니뭐니해도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컨셉으로 기획된 ‘어린이 자료실’이다. 모험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취향에 맞게 정글의 이미지로 꾸며진 어린이 자료실은 주제별 아동도서를 비롯해 백과사전과 정기간행물, 어린이용 CD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열람실 내부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개미나 메뚜기, 무당 벌레, 물고기 등의 모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정글탐험을 하면서 책을 읽는 기분이다. 한쪽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독서할 수 있는 ‘모자열람실’이 따로 있다.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나눔열람실’도 별도로 마련해 배려를 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동요교실, 독서회, 컴퓨터 교실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유아방



- 종합자료실
- 어린이 자료실 입구
- 로비에 마련된 전시공간 (왼쪽부터)

도서관 이용시간 _ 일반열람실 : 월~일(06:00~22:00) / 종합자료실·정기간행물실·디지털자료실 : 월~금(09:00~20:00 동절기 1시간 단축) 토요일(09:00~17:00) 일요일 (09:00~18:00 동절기 1시간 단축) / 어린이자료실·나눔열람실 : 월~금(09:00~18:00 동절기 1시간 단축) 토요일(09:00~17:00) 일요일(09:00~18:00 동절기 1시간 단축) **휴관일** _ 첫째, 셋째 화요일과 국경일 **문의** _ 계양도서관 (www.gyl.or.kr 555-6431)

연수도서관 _ 첨단 어우러진 ‘디지털 도서관’

지난 4월 1일 문을 연 연수도서관은 첨단정보기술이 책과 한데 어우러진 곳이다. 이 도서관의 주특기는 바로 정보화. 3만 여권의 기본 도서를 비롯해 1,300여 개의 열람석을 갖춘 종합자료실 외에 2천여 점의 디지털 콘텐츠를 갖춘 디지털 열람실이 따로 있다.

‘디지털 열람실’ 안에는 웹자료를 빠른 속도로 검색할 수 있는 최신 성능의 컴퓨터 48대와 영화를 비롯해 어학관련 자료 등 1,500여 종의 DVD도 갖추어 놓았다. 또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본인이 노트북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장애우 열람실’에는 책 속의 글자가 확대되어 보여지는 문자확대기와 음성지원시스템을 갖추어 놓았고 ‘아동열람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유아·초등학생용 도서, 백과사전, 여성잡지, 아동잡지, 아동신문 등의 다양한 자료를 비롯해 CD-ROM, 위성방송, 오디오,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또 한켠에는 유아방을 온돌방으로 꾸며 놓아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배려했다.

이밖에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1·2실, 영화상영과 인형극 공연, 발표회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 컴퓨터 기초과정과 엑셀교육 등 정보화 교육을 하게 될 정보화교육장 등이 있다.



디지털자료실

- 어린이자료실
- 장애우 열람실의 문자확대기 (왼쪽부터)



도서관 이용시간 _ 일반열람실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어린이 열람실은 09:00~18:00) **종합자료실 대출시간** _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토요일은 09:00 ~ 17:00) **휴관일** _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에 휴관. **문의** _ 연수도서관 관리과 (www.yslib.go.kr 814-7540)

오 픈 | 계양도서관 · 연수도서관

책만 읽기엔 아까운 ‘토탈문화공간’

이쯤되면 차라리 도서관이 아니라 문화공간이라고 해 두자.

최근 새로 문을 연 연수도서관과 계양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거나 빌려 오기에는 아까운 복합문화공간이다.

게다가 열람실 좌석을 지하철표 끝무 무인자판기로 발급받고 혼자서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게

자동대출반납시스템(RFID) 및 무인안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최첨단 도서관이다. (사진 _ 김정식)

인 천 의 공 공 도 서 관

북구도서관	www.ipl.or.kr	519-9021	매월 2,4주 월요일 휴관
중랑도서관	www.ijlib.or.kr	421-1154	매월 1,3주 월요일 휴관
부평도서관	www.bpl.go.kr	526-9301	매월 2,4주 화요일 휴관
주안도서관	www.ijuanlib.or.kr	437-5304	매월 2,4주 목요일 휴관
서구도서관	www.seogulib.or.kr	578-0862	매월 1,3주 금요일 휴관
화도진도서관	www.hwadojinlib.or.kr	763-8134	매월 1,3주 수요일 휴관
시립도서관	www.incheonlib.or.kr	764-9931	매주 월요일 휴관



계양도서관



연수도서관

교육받고 나면 여성파워 ‘쑥’

‘여성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여성들만의 마당이 펼쳐진다.

오는 6월 1일 연수구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연수구 보건소) 자리에 문을 열게 될 ‘여성의 광장’이 표방하는 것은 바로 능력있는 여성을 길러내는 공간이 된다는 것. 미리 둘러보는 여성의 광장 구성구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_ 기존의 여성사회문화교육기관의 프로그램들이 부업을 돕거나 혹은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윤택하게 보낼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면 ‘여성의 광장’에서 만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이보다 더 한단계 차별화되고 전문화, 고급화된 강좌들이다.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뒤 짜여진 프로그램들이라 여성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어 있다.

전문직업교육과 문화교양교육, 체육전문교육 등으로 나뉘어진 강좌는 모두 35개 과목, 45강좌에 걸쳐 1,034명이 수강을 할 수 있는 방대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여성의 광장은 여성의 IT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한다. 하지만 단순히 집에서 홈쇼핑을 하고 메일을 주고 받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취업을 해서 산업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있게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한다. 홈페이지 제작과정과 디자인 기반과정 등의 단기교육을 비롯해 프리젠테이션기획·제작과정, 전자상거래 웹사이트구축과정 등 교육과정의 면면을 보면 여성의 광장에서 키워질 인재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또한 출중한 외국어 실력을 갖춘 전문가도 키워낸다.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의 세 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국제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갖춘 여성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3개국어를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능력을 키우는 과정을 마련했다. 특히 미디어 영어과정은 현재 케이블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와 CNN, NBC 등의 뉴스프로그램, 최신 유행 팝송, 디즈니애니메이션 등으로 영어회화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사진 _ 김정식

여성창업&비즈니스 지원사업 _ 그렇다고 여성의 광장을 단순한 교육기관이라고만 생각하면 섭섭하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실제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바로 ‘여성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여성창업&비즈니스 지원사업’도 활기차게 진행할 계획이다. 여성의 광장 2층에 마련된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에서부터 안정기에 도달한 여성기업인까지 창업교육 및 마케팅·홍보지원, 세무상담, 창업자금알선 등 단계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창업지원센터의 입주대상은 여성예비창업자나 창업 후 2년 이내의 여성창업자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이나 콘텐츠비즈니스분야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창업전문교육과 인터넷쇼핑몰경영, 문화콘텐츠비즈니스, 경영실무, 마케팅전략 교육 등 ‘여성비즈니스 교육 프로그램’과 ‘양성평등교육’을 통한 여성창업전문교육, 조직 적응력 향상훈련, 여성지도자들간의 휴먼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들의 창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여성전용헬스장·전문문화체험교실... _ 이밖에도 여성의 광장에는 여성들이 이용할 만한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시민체력센터’는 인천 유일의 여성전용헬스장이다. 그러나 체력단련기구들만을 갖춘 평범한 헬스장이 아니라 운동처방사로부터 기초체력과 비만도, 운동부하검사 등의 테스트를 받은 뒤 나에게 꼭 맞는 운동을 처방받는 전문공간이다. ‘양성평등아카데미’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일굴 수 있게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갖도록 도움을 주는 공간이다. 관내 학부모와 노인과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이론에 대한 강의를 하고 성희롱 예방과 성매매방지교육 등에 관한 비디오와 영화상영 등을 한다. 교육시간 외에는 시설을 대관해준다.

‘전통문화체험교실’은 실생활에 쓸모있는 우리 민족의 전통예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가르치는 곳이다. 월 4회씩 3개월(8시간) 과정으로 한국인의 예절의식, 인사예절, 다도예절, 우리의 옷, 가정의례, 세시풍속, 다식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여성의 광장 1층 한쪽에는 열람은 물론 대출도 가능한 ‘도서정보실’이 있어 교양을 넓힐 수 있고 ‘여성의 광장 어린이집’에는 인근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물론 수강생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319석을 갖춘 ‘공연장’은 지역주민들이 크고 작은 공연을 올릴 수 있게 대관을 해준다.

■ 교육프로그램

전문직업교육 (17개과목 25강좌 532명)	건강다이어트관리사, 신나는 상차림, 공인중개사, 플라워디자인, 독서지도사, 부동산재테크, 기초미디어 영어반, 중급미디어영어반, 기본중국어회화반, 전문중국어회화반, 기본일본어회화반, 전문일본어회화반, 홈페이지제작과정(HTML/드림위버), 디자인(Design)기반과정, 프리젠테이션 기획&제작과정,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과정, 스페셜리스트 웹디자인 마스터과정
문화교양교육 (11개과목 11강좌 297명)	뮤지컬연극, 생활건강식, 전통요리, 솟공예, 아이러브마술, 아로마테라피, 역사기행, 서양화교실, 사진아카데미, 도전·노래쟁, 전통문화체험
체육교양교육 (4개과목 6강좌 145명)	웰빙기공·요가, 찹댄스, 벨리댄스, 체력단련실
양성평등교육 (1개과목 1강좌 20명)	양성평등아카데미
여성창업교육 (2개과목 2강좌 40명)	인터넷쇼핑몰, 소규모(점포) 여성창업

■ 교육기간 및 모집일

구분	모집일	교육기간 (66日)	모집방법
제1기	2004. 5.18(화) 10:00	2004. 6. 1 ~ 9. 7	공개추첨 및 선착순
제2기	2004. 8.17(화) 10:00	2004. 9.14 ~ 12.17	

문의 _ 인천광역시 여성의 광장 <http://women-center.inpia.net> (815-7101~3)



사 람 하 나 만 나 고 싶 다 · 다 섯 번 째 사 람



세상의 죄가 하나도 묻어 있지 않은 그런 얼굴빛. 일흔이 넘었어도 발그레한 동자(童子)의 웃음을 웃는 의사 선생님, 전의철(金毅哲) 박사(인천중앙감리교회 장로). 육신의 절반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아무 불편이 없고 비관이 없다. 캄캄한 체념이 없으니 언제나 천진한 아이의 말투를 가지고 있다. 느릿느릿 말하고 조용히 웃는다. 마치 하느님이 옆에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동자의 웃음을 웃는 의사 선생님

전 의 철 박 사

이분은 언제나 ‘멜빵바지에 눌러쓰는 납작한 모자, 그리고 나비넥타이’를 매는 인천 유일의 상징이며 멋쟁이다. 이런 취향을 갖게 된 것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하던 1963년부터.

공부로 낮밤을 지새우던 시절이라 이런 장신구가 그때그때 몸치장하기에도 간편하고 또 시간이 절약이 된다는, 나름대로 실용적 판단 때문에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평생 몸에 익어 버린 습관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연세가 드셔서 색깔을 바꾸셨는데 사실 전에는 붉은색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매일 아침 그 호랑나비들을 바로잡아 매 주는 분. 어쩌면 부군을 따라 자신도 몰래 그렇게 되기를 하느님께 자청했는지, 똑같이 신체의 반이 불편해진 부인 김광신(金光信) 여사가 누르스름한 바탕에 점이 박힌 나비넥타이를 꺼내놓으며 웃는다. 아마 당신 부군께 이걸 매고 사진을 찍으시라는 뜻 같다. 그러나 사진은, 사진 찍는 사람의 말을 좇아 좀 푸른 기가 도는 것을 매고 그냥 또 빙그레 웃으며 찍어 본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또 더 소년 같은 미소를 지으며 먼저의 누른색으로 바꾸어 맨다.

“몽골에 간 것은 집의 애가 이야기를 해서 가게 된 거지요.”

꼭 슈바이처 박사를 꿈꾼 것은 아니었지만, 어디든 무의촌 아무 곳이나 찾아가서 그저 짐승처럼 순박하고 언제나 성자처럼 말없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 곁에 조용히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아픈 곳을 가슴속으로부터 아물게 해 주는 것이 전 박사의 젊은 시절부터의 꿈. 그러나 세상살이에 바빠 마음뿐이었다가 다시 그 꿈을 생각해 낸 때가 주안 세광병원을 설립한 뒤 환갑을 지내고 나서였다.

아아, 목숨이 남아 있다면 앞으로 10년은 이 지상에서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바치자. 하지만 국내에는 이분이 갈 만한 무의촌이 없었다. 여러 날 물색을 해서 마침

내 떠나기로 마음을 정한 나라가 지구 저 편에 있는 파라과이. 의사가 부족한 나라였다. 그곳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세브란스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아들이 몽골을 추천한 것이었다.

몽골. 라마교와 유목민의 나라. 겐과 허르호크, 그리고 초원의 풀을 뜯는 말과 소와 양과 염소의 한가로운 풍경의 나라. 봄이면 고원 언덕에 잠시 피었다 지는 이름 모를 풀꽃. 그 무렵이면 거기에 하얀 나비도 팔랑팔랑 날던가. 전 박사가 몽골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고작 그런 것뿐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아들의 추천에 따라 1993년 전 박사는 모교인 연세대학교 선교 현장 시찰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고, 몽골을 돌아보고는 선뜻 마지막 ‘10년 삶의 장소’를 결정한 것이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세워진 연세친선병원 은 그 이듬해 우리 국경일 개천절에 맞춰 문을 열었다. 그것도 어떤 의미라면 의미였다. 그리고 이제 전 박사는 이 병원의 자원봉사 의사가 되었고 거기에 부인은 ‘못 살고 더러운 몽골 사람의 모습으로 어느 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을 거’라며 남편을 전적으로 돕고 나섰다. 이것이 이 두 부부의 진실이고 믿음이고 소망이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필경 목련의 얼굴이었을, 언제나 환한 안색의 부인과 그리고 그 옆에 항상 온유하게, 내면의 미소를 짓는 죄 없는 동자의 얼굴, 남편. 선한 마음들. 두 사람은 이제 이국에서 펼칠 의료 선교의 동지가 된 것이다.

그리고 7년 반의 몽골 생활. 채소와 과일이 없는 텅 빈 몽골의 산언덕과, 그러나 틀림없이 하느님이 내려 주시는 더없이 깨끗하고 좋은 공기와 늘 맑은 하늘을 보이는 날씨와 고원의 밤하늘에 뜨는 수만 개의 찬란한 별빛. 그러나 인간의 삶은 온통 질곡뿐이었다.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는 죄 없는 아이들의 가난과 병어리 세 모녀, 열 살짜리의 키를 가진 성인 여자의 눈동자, 갓난아기의 몸을 짐승처럼 자신의 헛바닥으로 핥아 주는 어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면서도 아기 어머니가 된 것이 행복하다는 산모. 7년 반 동안의 이 처참하고 행복한 몽골 생활의 의미는 ‘나그네를 돌봄이 곧 나를 사랑함이다’

라는 하느님 말씀 그대로였다.

전 박사가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것은 당뇨 환자이면서도 선교 생활 7년 반 내내 여러 사람을 먹이는 힘겨운 식사 당번 노릇을 했던 부인의 나날들.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전 박사는 안경 속에서 가느다랗지만 한없는 애정이 숨겨져 있는 눈길을 부인 쪽으로 보낸다. 인천에 단 두 사람밖에 없는 ‘신사임당상’을 수상한 고운 부인이 그것을 눈웃음으로 받아들인다. 따뜻하다. 꽃불을 켜 듯 밝고 환하다. 그리고 주위가 모두 훈훈할 만큼 아름답다.

그런 것일까. 부부의 마음은 그런 것일까. 부인이 자기는 이제 거기 몽골 사람이 되었다고 거기서 죽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정말이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애틋한 마음이 들었었다는, 아니 지금도 그 말만은 귓가에 생생하다는 이분의 얼굴이 조금은 더 홍조를 띠는 듯하다.

전 박사는 196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인천기독병원 외과의사로 있으면서 특히 전간(癲癇) 치료에 남다른 정열을 쏟아 부었던 경력이 있다. 어느 병인들 불행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웃에도 부끄럽고 흥한, 이 불치로 알려졌던 간질병의 불행을 이분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 당시 미국인 여선교사 닥터 로빈슨이 결성한 ‘장미회’라는 봉사 단체에 참여해서 환자들을 돌보았다. 따지고 보면 무의촌 순회 진료에는 어느 병원보다도 적극적이었던 기독병원에 이분이 20년을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전 의철 박사는 몽골에 가서 의료 선교를 베풀 보답으로 1999년 연세대 의과대 봉사대상을 받았다. 또 2000년에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그리고 몽골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건국대학 설립자 유석창(劉錫禔) 박사를 기념해 제정된 상허상(常嘯賞) 제 15회 의료 부문 수상자가 되기도 했다. 몽골연세병원 초대 원장, 몽골연세사회복지재단 지부장을 지냈고 지금은 몽골연세친선병원 이사장으로 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다. 2003년에는 상허상 수상 상금 2천만 원에다 자식들이 보탠 1천만 원으로 남동공단에 인천자선클리닉을 설립했다. 외국인 노무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작년 봄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다. 그래서 왼쪽 몸 절반이 불편해진 것. 그러나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 하느님이 귀에 대고 ‘너 다시 일어나 내게 오너라’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른다. 스스로도 하느님의 음성을 기다린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요즘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편한 사람 이상으로 바깥나들이가 빈번하다.

웃음을 웃는 것도 육신을 반만 놀릴 수밖에 없는 것도 다 하느님 뜻이라고 말한다. 마주앉은 부인이 넘겨다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미국 달라스에서 매형을 도울까 해서 달려온 처남 박광제(朴光濟) 목사도 이 광경에 끌려 들어와 똑같이 고개를 끄덕인다. 인간의 훈장도 받고 다른 상도 받았지만 이분에게 내릴 하느님의 상은 과연 어떤 것인지...

창 밖의 봄날이 아주 좋다. 똑똑 목련이 지고 있다. 순리다. 그래서 꽃이 지는 게 그다지 쓸쓸하지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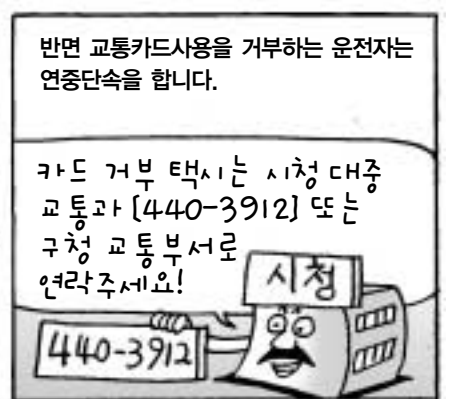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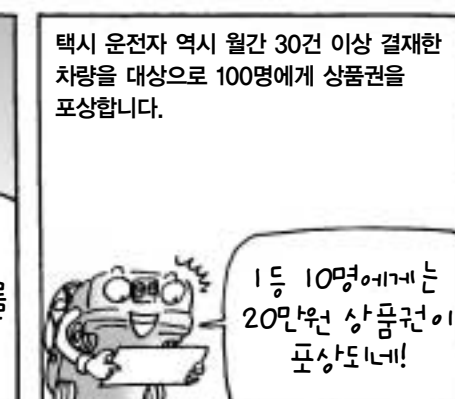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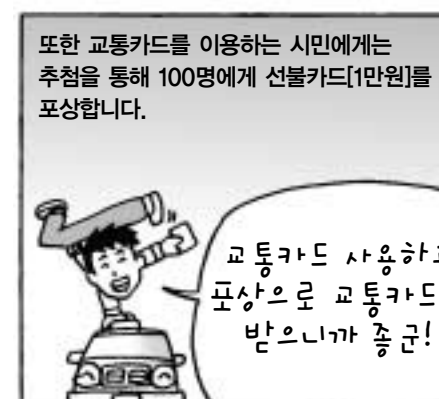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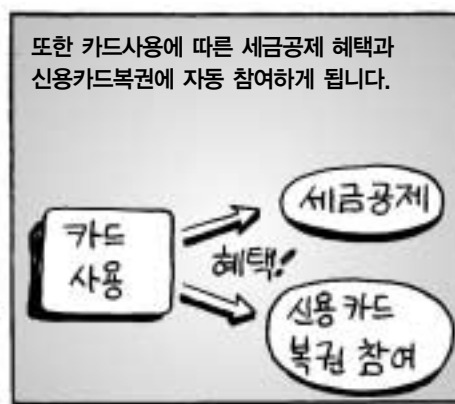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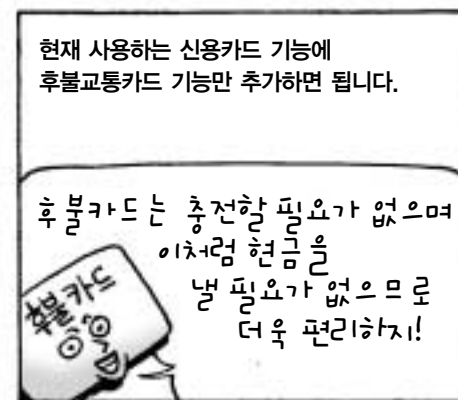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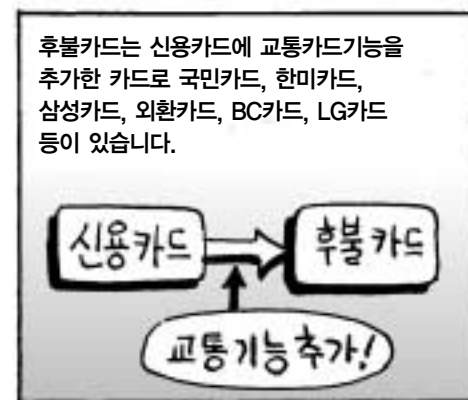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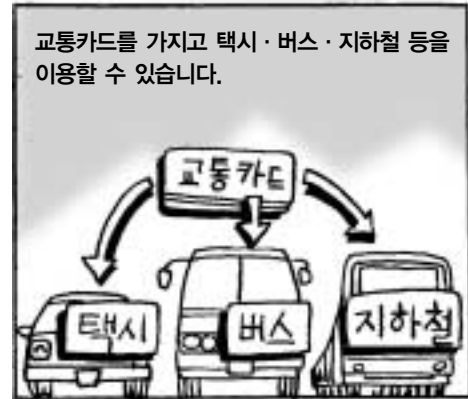
글 _ 김윤식(시인) · 사진 _ 김보섭(사진작가)

굿모닝 어진이네



(제16회)
택시 교통카드 편

글·그림 박두리



효도가 별건가요

“엄마, 널 우리 언니네랑 진안 마이산 가기로 한 거 아시죠? 새벽에 엄마 집앞에 차를 대기시킬테니 준비하세요.” “야, 야, 난 싫다. 괜시리 늙은이가 가면 두 집 놀러 가는데 방해만 된다야.”

어머?? 뭘 소리? 엄마를 위해서 가는 여행인데. 처음엔 이렇게 한사코 반대를 하시던 올 엄마. 막상 새벽에 도착해 보니 어느새 빨간 립스틱까지, 예쁘게 꽃단장하고 기다리시네요. 오랜만에 저희 가족은 인천을 벗어나 진안 마이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출발해서 그런지 그런 대로 초행길치고는 아주 단번에 제대로 도착을 했어요.

이갑룡 척사께서 홀로 하나 하나 쌓아 올렸다고 하는 한국의 칠대불가사이 진안 마이산. 처음에는 그 정교함과 황홀함에 탄성을 질렀지만 사실 내가 더 기쁘고 행복했던 것은 정말 우리 가족이 함께 한다는 자체가 아니었나 싶어요.

마이산에서 숯불 바비큐로 허기를 채운 우리 가족은 남원 광한루로 향했습니다. 아~~~~춘향이와 이도령의 정기가 물씬 풍겨지는 곳 광한루. 입구에서부터 우리를 맞이해 주기라도 하듯이 활짝핀 꽃. 그 속에서 싹틔운 두 사람의 애절한 러브스토리를 생각 하니 잠시나마 가슴속이 싸아~해지더군요.

춘향이 사당을 들어가는데 작은 글귀가 보이더군요. 이곳을 들어가는 사람은 백년해로 한다고. 문득 직장 때문에 못 오신 친정 아버지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답에는 정말 두분 꼭 같이 모시고 와야지.

함께 간 다섯살배기 조카 녀석 보다 더 신나 하시는 올 엄마. 왜 진작 몰랐을까요. 엄마가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애처럼 팔짝 팔짝 뛰시는 모습. 사진 찍는 걸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어느새 어느 잡지 모델 이상으로 포즈를 취하시는 올 어머니. 해외 여행이 아닌들, 좋은 선물이 아니면 어떨까요. 진정으로 즐거워하시는걸 보는게 바로 효도 아닐까요?

아, 이제 곧 어버이날이기도 하네요. 우린 선물 대신 두분 모시고 부여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사람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이 아닐까요.

이 봄이 가기 전에 부모님 모시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고 오겠습니다.

박미숙 (남구 주안8동)

그래 걷자, 뛰자, 날자

세상에 하나뿐이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은 저희 남편입니다. 저희 남편은 올해 31살로 현재 구로지점 SK텔레콤 야간 휴대폰 분실습득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2시간 근무를 하는터라 하룻밤은 혼자 자고 하룻밤은 같이 자는 일일 부부죠.

저희 남편은 일반인과 조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우입니다. 장애우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던 저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지 어느새 11년.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지만 저희 남편은 특별하게 불편한 곳 없이 요즘 같은 경기불황에 일도 하고, 또 운전도 합니다.

장애인이자 나약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턱없이 부족하기에 저부터가 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데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생활력도 강하고, 자기관리 또한 잘 합니다. 야간근무를 하다보니 저도 일을 하는 터라 6시면 집 문밖을 나서서 출근하는 남편을 보지는 못하지만 남들 자는 시간까지 일을 하기에 턱없이 피곤 해 보이고 힘들어 합니다.

사고로 인해 다리를 저는 남편의 모습은 뒷모습을 봐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인가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178cm가 넘는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이라 솔직히 큰 볼품은 없지만 어찌나 듬직하고 자랑스러운지. 하지만 그런 마음 한편에는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어 전 이내 남편의 뒷모습을 오래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육이 워낙 굳어있어 운동도,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아야하는데... 전 그런 남편에게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또 모자랍니다. 남들은 제가 그랬듯 저희를 향해 새안경을 끼고 바라볼지언정 저

는 제 남편..., 제가 선택했기에 세상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겠다는 욕심은 없습니다. 아직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게 턱없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장애인에게도 저희들처럼 일반인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부터 모든 것이 재생되는 것이 앞으로의 저의 희망입니다.

그 전까지는 남들 못지 않게 열심히, 그리고 저희보다 못한 이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들에게 힘이 된다면 베풀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도 남편은 출근을 하는데 세상을 향한 남편의 발걸음은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내딛을 것입니다.

이임녀 (강화군 강화읍)

우리 가족 첫 나들이



“엄마 이제 일 그만하시고 집에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시며 편히 지내세요.”하고 말씀드려도 저희 엄마는 한결같이 저에게 “내 죽는 그 날까지 너희들에게 폐가 되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내 손으로 벌여 손주녀석을 용돈이라도 주는 것이 내 삶의 낙이다.”하시며 한결같은 미소로 오늘도 손님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저희 엄마는 올해로 64세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지금까지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36살의 젊디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까지 재혼도 하지 않으신 채 저희 4남매를 입히고 가르치고 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덕분에 막내 동생을 제외하고 언니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3남매는 각

자 가정을 꾸미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가정을 꾸미고 살다보니 내 남편 내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되었고 그토록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엄마생각은 차츰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사를 하던 엄마가 “요즘은 대형할인매장이 많이 생겨서 가게세 내기도 버겁다.” 고 하시며 한숨을 내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되지 않아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 뭘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 저희 가족은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허튼 곳에 돈을 쓴다며 싫은 내색을 하시던 엄마도 막상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시원한 바람 맞아가며 또 맛난 음식을 드시고 자식들과 함께 하니 천국이 따로 없다시며 무척이나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매는 난생처음 엄마를 모시고 지난 겨울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사진은 지난 겨울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엄마 이쁘시죠?)

김금순 (남구 주안4동)

다음달 테마는
‘수학여행’입니다

'수학여행'에 관련된 재미있는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2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께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5월 20일 까지 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어머니의 청국장

오래 전 친정어머니가 다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어 짐 정리를 돕고 있던 중,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라 목이 메이고 말았었지요. 큰딸이 마흔이 되는 해 운수대통이라 가게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점쟁이 말에 “장사나 한번 해보려무나! 진짜 큰 돈을 벌지 누가 알겠니?”하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저는 인하대학교 근처에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낮에는 남편과 여동생이, 저녁엔 어머니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대학근처라 학생들의 모임과 하숙생들이 많아 가게는 잘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뒤 IMF가 닥쳐 우리 음식점에도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가게 월세를 제외하면 생활하기도 어려워서 나중엔 보증금을 다 날리고 권리금도 없이 서둘러 가게를 처분했습니다. 대출금이 산더미처럼 불어나 그나마 좀 있던 생활자금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쳐서 “내가 왜 점쟁이 말을 귀담아 들은 어머니 말을 듣고 가게를 했는지 몰라!”했습니다. 너무 상심해서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미쳤지, 점쟁이 말을 듣고 망할 가게를 차리게 해서 큰딸 고생만 시키고 빚만 지게 되었구나!” 하시며 상심이 크셨습니다. 어머니는 얼마 후에 살던 집을 처분해 목돈을 저에게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다시 가게를 시작해 가족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그때 큰딸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줄 다 알면서도 맘 아프게 해드려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어머니께 효도하는 큰딸이 될게요’

저에겐 자연의 품 같은 어머니. 올 설날에 가족과 함께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가 떡국과 함께 끓여주신 청국장 독배기 생각이 나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안부전화를 드렸답니다.

강예숙 (남동구 간석2동)



설악산

작년 가을이 다 지나갈 때 쯤 해서 엄마, 언니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와 조카와 아들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설악산으로 놀러 갔답니다. 정상까지는 못 가더라도 흔들바위까지는 가려고 했는데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그래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김상옥 (부평구 부개1동)



오 할아버지, 오 할머니와 함께 인천대공원에 놀러갔답니다.

김민엽 (부평구 십정2동)

가족나들이
따뜻한 봄날에 진달래 개나리가 활짝 방긋 웃고 있는 날! 남동생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우리 가족은 에버랜드에 나들이를 갔었다. 가운데 있는 조카 단비가 제일 포즈가 멋있고 귀엽죠? 우리가족 파이팅!
이미순 (서구 석남1동)

언제나 함께 할 우리가족

어버이날을 맞아 저희 가족은 물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삼촌과 외숙모, 그리고 사촌형까지...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합니다.

박재성 (부평구 갈산2동)



결혼식장에서

얼마 전 여동생 결혼식이 있었답니다. 1남 2녀를 두신 부모님. 이제 딸 둘을 시집보내시고 남동생만 남았네요. 부쩍 씁쓸해진 마음을 생각하면 맘이 씁쓸하지만 앞으로 더욱 친정부모님 생각하며 예쁘게 잘 사는 모습 두 딸들이 보여드릴게요. 건강하세요~(사진은 남동생과 친정부모님)
최정숙 (남구 주안8동)

공인중개사 무료교육 받으세요

박문각 부동산교육원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대비해 공인중개사과정을 무료로 교육합니다. 우리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고 교육은 1달 동안 상·하권 중 상권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재는 필요한 사람만 서점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교육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진 2매와 접수비 2만 5천원을 지참해 선착순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교육기간 : 5월 3일~5월 31일

• 교육시간 :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7시 각 3시간씩

문의 _ 박문각부동산교육원 (435-9908 www.bestgosi.com)

서구물썰매장, 어린이날 임시 개장합니다

서구물썰매장이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하루동안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시로 개장합니다. 이 날에는 11시부터 12시까지 물썰매장 슬로프에서 물썰매 빨리타고 내려오기, 토우 만들기 무료체험, 상희도자기 체험장 운영 등의 특별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 편의시설 : 물 썰매장, 유로벤치, 스넥하우스, 방송실, 의무실, 무료주차장

• 교통편 : 시내버스-서구청 앞 하차 : 7, 13, 17, 17-1, 77, 112번(도보 5분) / 썰매장 앞 하차 : 1, 28, 591번 / 자가용-가정오거리(서인천 I·C)에서 서구청(강화)방향3km, 검단사거리에서 서구청 방향

문의 _ 서구사계절썰매장 (565-3483, 560-4945, http://www.issi.or.kr)

미추홀문화회관 수강생 모집

미추홀문화회관에서는 미술, 무용, 악기, 국악, 공예 등 다양한 전통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12기 여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아울러 기존강좌 외에 영세민과 문화 소외계층을

제4회 흥예문 가는 길! 토요 야외 거리전

민예총에서는 인천의 대표적인 축조물로 역사적 전통을 이어온 흥예문 입구 은행나무 숲길에서 시민이 직접 느끼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제4회 흥예문 가는 길! 토요 야외 거리전'을 개최합니다.

• 일시 : 5월 8일 ~ 29일 매주 토요일 오전11시 ~ 오후5시

• 장소 :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 (동인천 (구)인천여고 은행나무길)

• 전시내용

- 공예 : 생활양재, 데코파쥬, 쉼도우박스, 패션페인팅, 고무찰흙, 스텐실, 켈트, 종이접기, 수정한지그림, 에그아트, 흙인테리어, DIY가구공예, 목공예, 선물포장 & 꽃장식, 도자기 공예, 구슬공예, 토피어리

- 미술 : 동양화, 서양화, 서예, 흙스케치

- 사진

• 시민참여 무료행사

일시	행사내용
5월 8일	13:30 데코파쥬 : 장식용 고리 만들기 / 목공예 : 목걸이 만들기 / 페이스페인팅 :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14:00 개막식 & 다과회
	14:30 길놀이 & 사물놀이
	15:00 켈트 : 어린이 모자 만들기 / 흙스케치 : 나만의 액자 & 엽서 만들기, 가훈 쓰기 시연회
	15:30 미추홀 어린이 요들단 공연
5월 15일	13:30 데코파쥬 : 장식용 고리 만들기 / 목공예 : 목걸이 만들기 / 페이스페인팅 :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14:30 길놀이 & 사물놀이
	15:00 켈트 : 어린이 모자 만들기 / 토피어리 : 곰 얼굴 만들기 / 가훈 쓰기
	15:30 기타 연주회
5월 22일	13:30 양재 : 자녀 or 어른 몸에 맞는 스커트 옷본 만들어 드려요! 페이스페인팅 :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14:30 길놀이 & 사물놀이
	15:00 고무찰흙 : 미니 액자 만들기 / 도자기 교실 : 머그컵 만들기 / 초상화 그리기 시연회 / 클라리넷 연주회
5월 29일	13:30 양재 : 자녀 or 어른 몸에 맞는 스커트 옷본 만들어 드려요! 페이스페인팅 :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14:30 길놀이 & 사물놀이
	15:00 고무찰흙 : 미니 액자 만들기 / 선물포장 & 꽃장식 : 헤어 밴드 만들기 / 초상화 그리기 시연회 / 플룻 / 오카리나 연주회
	15:30 미추홀 어린이 요들단 공연

문의 _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 (765-0220, 0250)

위한 10여 개 무료강좌도 마련했습니다.

• 강좌기간 : 6월 7일 ~ 8월 28일

• 접수기간 : 5월 1일 ~ 6월 12일

• 장소 : 미추홀문화회관 (구)인천여고

• 대상 : 영아/유아/어린이/청소년/주부/일반인/직장인

• 무료 특별 기획 강좌 (3개월 강의) : DIY가구공예, 목공예, 생활양재, 서예 교실, 한국화, 데생 & 수채화, 이영유시인과 함께 하는 '문학아카데미',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 사진 촬영 교실, 어

린이 서예교실, 어린이 명심보감, 일어회화, 풍물 교실

• 정규 유료 강좌 (3개월 30,000 ~ 90,000원)

공예 : 칼라믹스, 꽃꽂이, 켈트, 에그아트, 스텐실, 포크아트, 수정한지그림, 생활자기&테라코타, 고무찰흙, 흙인테리어(흙패션), 종이접기, 선물포장 & 꽃장식, 어린이도자기교실, 살아있는 식물인형 토피어리, 구슬공예, 옷수선반, 꽃꽂이 창업반

미술 : 영재미술아카데미, 수채화&유화, 데생&스케치, 미술회화, 홈스케치

무용 : 엄마랑 덩더쿵 우리춤 체조, 한 국무용, 발레, 어린이재즈댄스, 태보 다 이어트, 째저싸이즈&나이트댄스, 파워 힙합 댄스, 신바람 나는 민속농민춤
노래·악기·국악 : 성악, 동요, 요들, 플룻, 기타교실, 바이올린, 클라리넷, 오 카리나, 하모니카, 풍물교실, 단소

어학·연극 : 어린이신체표현놀이(마임), 연극교실, 일러회화, 노래중국어, 리듬 중국어, 영어동화

교양·건강 : 다이어트건강요가, 베이비 요가교실, 골프, 인라인스케이트, 사주 역학&관상학

창의력·학습개발 : 영어동화, 프리벨 가베(은물), 움직이는 로봇 만들기, 하이 파이 셴, 마인드맵, 상상력이 자라는 동 화여행, 책임기와 논술교실, 생각을 키 우는 NIE교실, 어린이 한자서당(한자능 력검정시험 대비반), 동화구연, 엄마와 함께 하는 유리드믹스, 엄마랑 아가랑 즐거운 놀이세상, 창의력 과학교실, 어 린이 리더십 연기교실, 사이언스아트, 키즈사이언스, 레고 닥타, 델타샌드 모 래놀이

문의 _ 미추홀문화회관 (765-0220, 0250, www.mchart.co.kr)

인천국악회관 국악 문화학교

수강생모집

인천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인천 국악회 관의 국악문화학교에서는 5월부터 시작할 제 6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가야금, 풍 물, 민요, 판소리, 피리, 단소, 대금, 해금, 모듬북 등 다양한 과목을 모집하며, 만 65세이상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분들은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악회관에서는 국악인들 뿐만아니 라 일반인들에게도 연습공간을 무료로 제 공해주고 전통문화예술공연에 한해 공연 장 대관을 신청을 받습니다. 아울러 청소 년들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 학교CA활동

2004년도 건강검진 실시 안내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무료건강검진과 암검사를 실시합니다.

• 실시대상

구 분		대 상	실시주기
지역가입자		•세대주 : 짝수 년도 출생자 •세대원 : 만40세이상 (64.12.31) 출생자	2년 1회
직장	가입자	•비사무직 전체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04년 대상자	비사무직 : 1년1회 사무직 : 2년1회
	피부양자	•만40세 이상(64.12.31이전)짝수 년도 출생자	2년1회

• 실시기간 : 4월~12월31일까지(단, 12월31일까지 1차 건강검진을 실시한 2차 검진대상 자는 2005년 1월 31일까지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항목 및 비용부담

- 1차 검진 : 진찰, 구강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등 23개 항목
- 2차 검진 : 폐결핵, 당뇨병환 등 8개 질환 28항목
- 특정암 검사 :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대암

• 검진비용 : 공단전액부담. 단, 특정암검사는 공단50%부담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 (155-1125)

터미널시네마 <아라한 장풍대작전, 효자동이발사> 상영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터미널시네마 1관에서는 4월 30일부터 <아라한 장풍 대작전>을, 2 관에서는 5월 5일부터 송강호 주연의 <효자동이발사>를 각각 상영합니다.



• 관람요금 : 일반 6천원, 학 생 5천원

• 주차편의

- 남측·서측의 터미널 직 영 주차장 : 50%할인
- 동측·지하의 신세계 주 차장 : 백화점 구매영수 증 소지자 무료

문의 _ 터미널시네마 (430-7374, 7377)

도 지원합니다.

• 강습기간 : 5월 31일 ~ 8월 21일

• 접수기간 : 5월 3일 부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접수, 전화접 수, 인터넷 접수(www.kukakhall.com)

문의 _ 사)인천예총 국악회관 (875-4644, 876-8364)

앵속·대마 특별 단속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앵속·대마의 밀경 작, 밀매 및 투약사범을 발본색원해 마약 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그 해독성 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여 마약 중독자는 물론 유통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5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앵속·대마를 특별 단속합니다. 허가없이 앵속·대마를 재배, 판매,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엄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속이나 대마를 재배, 경작하거나 혹은 앵속이나 대마를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없 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부 마약수사과 1·2호 수사실 (860-4738, 4748 국번없이 127, 1301)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및 보건소

테러, 이럴 땐 이렇게 합시다

• 폭파협박·신고전화 통화요령

- 침착하고 예의있게 대화하십시오
- 신고자의 말을 경청하고 통화를 방 해하지 마십시오
-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 능한 오래 말하도록 유도하십시오
- 대화중 주위사람에게 알려 녹음, 신 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하십시오

•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되었을 경우

-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어떠한 경우 에도 운반하거나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최단시간내 대피하고 동료들에게도 알려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 습격·폭파시 행동요령

- 폭파사건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바닥에 엎드려 신체를 보호합 니다
- 통상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얼마 후 2차 폭발이 있으므로 절대 미리 일어나서는 안되며 이동시에는 낮게 엎드린 자세로 이동합니다
- 총기에 의한 습격일 때는 자세를 낮 추어 적당한 곳에 은신하고 경찰이 나 경비요원의 대응사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 독가스 등 생화학가스가 살포된 경 우,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중지한 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속히 현장을 이탈하십시오

• 인질 납치시 행동요령

- 놀라거나 자제력을 잃지 말고 침착

푸른 5월, 청소년 행사 다양해요

구 분	일 시	장 소	참석범위	주관단체
전통혼례식	5. 22 10:00-12:00	인천 도호부청사	참가 : 신청자 관람 : 모든 청소년	인천광역시 (438-4293)
제13회 청소년 가요제	5. 29 16:00-19:0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참가 : 신청자 관람 : 모든 청소년	" (440-6651)
과거시험	5. 8 15:00-17:00	인천 도호부청사	신청자	" (438-4293)
과학탐구마당	5.1,8,22,29 10:00-16:00	영종도 과학전시관	신청자	" (434-5711)
장애우 청소년과 함께하는 행복콘서트	5. 22 15:00-17:00	YMCA 여성문화회관	참가 : 장애 청소년 관람 : 모든 청소년	" (424-0524)
자전거역사 기행	5.29~30 (1박 2일)	강화도	신청자	" (833-2010)
2004년 봄철 청소년농구대회	5.30~6.1 17:00-19:00	청소년회관	참가 : 신청자 관람 : 모든 청소년	" (440-6263)
청소년 문화축제 한마당	5.8~29 매주토요일 15:00-18:00	자유공원, 월미도 문화의거리등 순회	참가 : 신청자 관람 : 모든 청소년	중구청 (760-7142)
어린이날 특별이벤트 행사	5. 5 15:00-19:00	자유공원	참가 : 신청자 관람 : 청소년 및 가족	중구청 (760-7142)
제2회 청소년음악회	5. 8 19:00-21:00	신트리공원	참가 : 신청자 관람 : 모든 청소년	부평구청 (509-6128)
제15회 화도진 문화제	5.1~21 10:00-17:00	화도진공원	청소년 및 가족	동구청 (760-9225)
화도진 가족축제	5.5~16 14:00-19:00	동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및 가족	동구청 (760-9225)
제16회 청소년 그림·글짓기 대회	5. 8 10:00-15:00	송현 근린공원	신청자	동구청 (760-9225)
2004청소년 댄스·가요제&그림 그리기 대회	5. 8 14:00-18:00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	참가 : 신청자 관람 : 청소년 및 가족	남동구청 (453-2122)
제3회 부평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5. 22 19:00-21:00	부평대로 풍물축제 행사장	참가 : 신청자 관람 : 모든 청소년	부평구청 (509-6128)
제10회 청소년 사생대회	5. 8 13:00-17:00	신트리 공원	참가 : 신청자 관람 : 모든 청소년	부평구청 (509-6128)
제6회 청소년 가요제	5. 8 17:00-19:00	신트리 공원	참가 : 신청자 관람 : 모든청소년	부평구청 (509-6128)
청소년 예능대회	5. 15 14:00-17:00	계산체육공원	참가 : 신청자 관람 : 모든 청소년	계양구청 (450-5123)
사제(師弟) 가요제	5. 22 16:00-18:00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참가 : 신청자 관람 : 청소년 및 교사	계양구청 (450-5123)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	5. 15 14:00-16:20	서구 문화회관	참가 : 신청자 관람 : 청소년 및 가족	서구청 (560-4134)
청소년 만화그리기 대회	5. 22 14:00-18:00	서구청 대회의실	신청자	서구청 (560-4134)
청소년 창작 춤 대회	5. 29 14:00-18:00	가정동 청소년 문화의집	참가 : 신청자 관람 : 청소년	서구청 (560-4134)
제10회 길거리 농구대회	5. 16 11:00-17:00	연수체육공원	참가 : 신청자 관람 : 모든 청소년	연수구청 (810-7082)
제2회 풋살대회	5. 16 12:00-18:00	연수체육공원	참가 : 신청자 관람 : 모든 청소년	연수구청 (810-7082)
청소년의 달 무료영화 상영	5월 매주일요일 15:00-16:00	강화청소년 수련관	영화별 연령제한	강화군청 (930-3582)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_ 시 청소년자원봉사과(440-3943)

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모든 구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 경우에 따라서는 살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함부로 저항하지 말고 감시가 엄격할 경우에는 절대 도망치려해서는 안됩니다
- 눈이 가려지면 주변의 소리·냄새·범인의 역양·이동시 도로상태 등 특징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 납치범을 자극하는 언행은 삼가고, 몸값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육성 녹음을 원할 경우 응하도록 하십시오
- 버스나 비행기 탑승 중 인질이 된 경우, 순순히 납치범의 지시에 따르고 선불리 범인과 대적하려 들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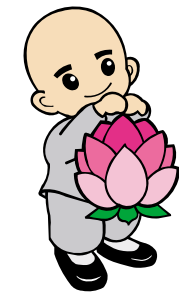
인천의료원 무료검진합니다

우리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에서는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시민봉사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진명 : 빈혈검사
- 검진과 : 내과7
- 검진항목 : CBC
- 검진기간 : 5월 10일 ~ 5월 14일 08:30~16:30
- 대상 : 인천광역시 시민
- 진료시간 : (월~금)

문의 _ 인천의료원 내과7(580-6388), 총무인사팀(580-6651-5, 580-6478)

부평풍물축제 일정별 · 주제별 행사 이모저모				
월일	주제별	행사내용	장 소	
5.19 (수)	전 야 제	KBS 2라디오 특집공개방송 『자두의 라디오가 좋아요』		舊 진도부지
	특별행사	KBS TV 쇼 진품명품		신트리 공원
5.20 (목)	개 막 식	2004 부평풍물대축제 개막식		신트리 공원
	경연대회	부평구 동풍물경연대회, 부평골 민속그네뛰기대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국악한마당		신트리 공원 부평구청
5.21 (금)	학술행사	학술심포지엄 《부평풍물의 복원을 위한 역사적 고찰》		부평구청
5.22 (토)	풍물마당	11:00 iTV 열전가수왕	19:00 KBS국악관현악단초청공연	문화빌딩 앞
		14:00 해외초청공연	해외초청공연	
		16:00 국내초청공연	21:00 창작공연	
	놀이마당	13:00 무형문화재(강릉농악)	18:00 경연대회 수상팀 공연	문화사거리
		15:00 무형문화재(강화옹두레질노래)	21:00 부평마당놀이	
		17:00 부평풍물완판공연		
	참여마당	11:00부평난장2004(프린지축제) 『부평.인천.수도권문화단체』	19:00 청소년축제 22:00 ROCK 페스티벌	한미은행 앞
	경연대회	10:00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10:00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		북부교육청입구 부평서초등학교
5.23 (일)	예술무대	13:00 어린이인형극	20:00 몸짓을 듣는다	롯데백화점 문화의 거리
		16:00 가족을 위한 무대	22:00 예술 음악카페 I	
		18:00 작은 음악회		
	놀이마당	14:00 해외초청공연	19:00 해외, 국내초청공연 (국내외연합공연)	문화빌딩 앞
		16:00 국내초청공연		
		13:00 무형문화재(남사당놀이)	18:00 경연대회수상팀공연	
	참여마당	15:00 무형문화재(봉산탈춤)	19:00 부평마당놀이	문화사거리
		17:00 무형문화재(남사당놀이)		
		10:00 부평난장 2004(프린지축제) 『부평.인천.수도권문화단체』		
5.20~23	경연대회	19:00 청소년 축제		북부교육청입구
		10:00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예술무대	13:00 어린이인형극	18:00 예술 음악카페 II	롯데백화점 문화의 거리
		16:00 POP&JAZZ	20:00 예술 음악카페 III	
	대동마당		21:00 부평 만 · 만 · 세	부평대로
	부대 · 참여행사	부평사랑행사, 지역경제활성화행사, 지역단체참여행사, 시민참여 이벤트행사, 축제사진공모전, 우표전시회, 거리퍼포먼스, 지하상가공연, 기획초대전, 상설 및 전시행사 Net-Work 자매도시 전시행사		축제행사장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오는 5월 26일(음력 4월 8일)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온누리에 깊이 새겨 봉축하며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시길 발원합니다.

지혜와 복덕을 밝히는 4월 초파일 ‘등공양’에 적극 참여하시어 소원성취 하소서.



보각사는 철마산에서 60여년 동안 부처님의 거룩한 자비를 실천해온 도량입니다. 도심 속의 산사 보각사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으세요.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도시인의 편안한 휴식처인 보각사를 찾아 불연을 맺고 큰 봉락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 봉축법요식 : 불기 2548년 4월 8일(양력 5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한불교 조계종 철마산 보각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산 98-9 Tel. 032)522-8131, 524-8131

사업 고민
짜~악
퍼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료(1개월 · 컬러 기준)

표4 (맨뒤 겉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42, 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